

9-18-2008

##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 하늘중앙교회를 중심으로

Kwi Sun Kwon 권귀선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Recommended Citation

권귀선,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 하늘중앙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 신학대학원, 2008.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REVITALIZATION OF SMALL GROUPS FOR THE RECOVERY OF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NEULJUNGANG CHURCH**

written by

**KWI SUN KWON**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Moon Sang Kwon

---

Sun Il Kim

---

Seyoon Kim

September 18, 2008

**REVITALIZATION OF SMALL GROUPS FOR  
THE RECOVERY OF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NEULJUNGANG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KWI SUN KWON**

SEPTEMBER 2008

#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 하늘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문상 교수

권 귀 선

2008년 9월

## Abstract

Revitalization of Small Groups for the Recovery of Church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neulJungang Church

Kwi Sun Kwon

Doctor of Ministry

200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study useful ways for the recovery of church community by developing in small group ministry.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clarifies the theological background of church as a community on the theoretical basis of church, Trinity and the Bible. Chapter 3 examines the definition and nature of small group and accounts for the importance of small group in the present age. Chapter 4 presents two successful examples of small group ministry: Pungseonghan Church and Hwapyung Church which show not only quantitative growth but also spiritual maturity.

Chapter 5 and 6 deal with the practical context of HaneulJungang Church. Chapter 5 investigates the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church and analyzes its circumstances and system. Through this progress, the researcher discovers primary factors of growth and problems and suggests that the whole church members have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current church system. Chapter 6 proposes small group revitalization strategy so as to supplement the weak points. The last seventh chapter summarizes the previous chapter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mall group revitalization for recovery of the church community.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Sun Il Kim, Ph. D.

Seyoon Kim, Ph. D.

## 감사의 글

종의 기대보다 더욱 귀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보다 깊은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은 함께 하는 목회에 대해 실제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신 풀러 신학교 교수님들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으며, 김태석 교수님의 배려로 소그룹 목회의 선두에 계신 권문상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삶과 목회의 여정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들도 저와 함께 동행해왔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 교회 사역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신 유영완 목사님, 부족한 아들을 항상 믿고 지켜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목회와 인생의 선배로 아주 작은 부분 까지도 세심히 돌봐주신 매형과 누님, 사랑과 격려로 늘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랑하는 아내 은혜정, 태중에서도 미소로 기쁨을 준 내년 1월이면 만나게 될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담아 드립니다.

2008년 9월 권 귀 선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5
제 2 장 공동체 교회 신학 .....	6
제 1 절 몸으로서의 교회 .....	7
1. 교회의 어원 .....	7
2. 성경적 교회개념 .....	8
3. 한 몸으로서의 교회 .....	12
4. 공동체의식과 지체의식 .....	14
제 2 절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동체성 .....	16
제 3 절 공동체의 사회학적 의미 .....	21
제 4 절 공동체 교회의 신학적 근거 .....	25
제 5 절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 .....	28
1. 구약에서의 공동체 .....	28
2. 신약에서의 공동체 .....	29
3.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	31
제 3 장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 .....	34
제 1 절 소그룹에 대한 이해 .....	34
1. 소그룹의 정의 .....	35
2. 소그룹의 특성 .....	37
제 2 절 소그룹 신학 이해 .....	41
제 3 절 소그룹을 향한 시대적, 교회적 요청 .....	45
1. 시대적 상황 .....	45

2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교회 .....	50
3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의 유용성 .....	55
제 4 장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 사례연구 .....	63
제 1 절 풍성한교회 .....	63
1. 교회 연혁과 NCD와의 만남 .....	64
2. 교회의 비전과 8대 목표 .....	65
3. 풍성한교회의 특징 .....	66
제 2 절 화평교회 .....	73
1. 교회 연혁 .....	73
2.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교회의 비전 .....	74
3. 화평교회의 특징 .....	75
제 5 장 하늘중앙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상황 .....	80
제 1 절 교회 역사와 비전 .....	80
1. 교회 설립과 성장 .....	80
2. 교회 비전 .....	83
3. 비전의 열매 .....	84
제 2 절 목회적 상황 .....	86
1. 지역 사회 이해 .....	86
2. 교회 사역 분석과 평가 .....	88
3. 사역에서 나타난 문제점 .....	94
제 6 장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 .....	98
제 1 절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전략 .....	98
1. 교회의 공동체성 공유를 위한 전략 .....	98
2. 교회의 공동체 문화 창출을 위한 전략 .....	101
3. 공동체 문화의 확장과 정착을 위한 전략 .....	104



제 2 절 소그룹 체계 강화 .....	107
1. 기존 소그룹의 강화 .....	107
2. 소그룹 리더의 발굴과 훈련 .....	110
3. 다른 소그룹, 외부 전문 인력과의 연계 .....	113
4. 정기적 평가 시스템 구축 .....	114
제 3 절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	115
1. 공동체 문화 공간 형성 .....	115
2. 특성화 소그룹 운용 .....	116
3. 기존 복지선교 소그룹의 체계화 .....	118
4. 지역사회와의 연계 .....	119
 제 7 장 결 론 .....	 121
참고 문헌 .....	124
Vita .....	130

## 그림 목차

<그림 1> D-12 양육시스템 .....	69
<그림 2> 하늘중앙교회 주변지역도 .....	81
<그림 3> 하늘중앙교회 평면도 .....	82

## 표 목 차

<표 1> 각 년도별 교인현황 .....	84
<표 2> 각 년도별 평신도 임원과 교역자 현황 .....	85
<표 3> 각 년도별 천안시 인구와 외국인 수 .....	87
<표 4> 각 년도별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	88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목적

한국교회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빠른 성장을 거듭해서 세계선교 2위의 선교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성장이 멈추었고, 어떤 이는 이러한 현상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한국교회가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침체기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침체가 사회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본, 믿음의 기본을 저버린 것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다. 교회가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할 때 변화하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절감한 많은 이들은 성장하는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그 관심을 옮기고 있다.

고도의 산업화 이후 한국은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으며, IMF 구제금융체제 이후 더욱 치열해진 생존 경쟁 속에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 관계들이 약화되어가고 있고, 과거 대가족의 삶 가운데서 무의식적인 행동 가운데서도 배울수 있었던 함께 어울어져 살아감에 대한 기쁨,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행동양식도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의 자존감은 점점 약해지고 이혼, 자살, 폭력과 같은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다양화, 전문화되어가며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군중속의 고독을 느끼고 살아간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참 가치를 알게 하고 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안내자가 되어 주어야 하며, 많은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내

야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19절에서 20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교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해야하며, 이를 위해 교회와 목회자는 교인들의 체감적 필요와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실제적인 필요를 바로 알고, 그것을 채워 주기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sup>1)</sup>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공동체성이 약해져가고 이에 따라 성도들의 지체 의식도 떨어지면서 인생의 안내자, 삶의 문제들에 대한 조력자, 필요를 채워주는 삶의 동반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목회적 현실 가운데 초대교회가 잘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풍성한 열매맺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어진 선결과제이다.

초대교회는 소그룹 공동체들로 구성되었으며, 서로를 돌아보아 필요를 채우며 참된 신앙의 가족을 형성했다. 이들의 신앙은 일주일에 한번 집회에 참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생활 그 자체였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의 생활에 함께하는 것이었다.<sup>2)</sup> 즉, 다른 구성원들, 지체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나누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 알 수 있는 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이며 유기체로서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된 성도들은 살아 움직여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살아 움직여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지체된 성도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목회자가 성도들의 역할을 제약하고 책임과 권위를 나누지 못하고, 그들을 믿고 기다려 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중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체로서 교회와 사회를 향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때로 교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존재로만 자신을 인식하여 풍성한 은혜와 믿음의 삶에 대한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 안에서 하나되는 지체로서의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살아

1) Larry Gilbert, *Team Ministry*, 채수범 역 (서울: 프리셉트, 2002), 206-207.

2) Ralph W. Neighbour, Jr,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147.

있는 신앙의 행위가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직시해야 할 또 하나의 큰 문제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기복적인 믿음에 바탕을 둔 토속신앙과 유교적 가치에 의식과 무의식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난 기독교인들까지도 점, 택일, 사주를 보기위해 뛰어다니고 있으며, 교회에서 행해지는 의사결정과 행동양식들까지도 성경과 올바른 기독교 문화에 기반을 두기보다 유교 문화에 기초한 것들임을 볼 수 있다.<sup>3)</sup> 이러한 현실 속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인간의 궁극적 운명, 우리와 세상이 향해가는 목적지, 고통과 갈등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순수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기복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복음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sup>4)</sup>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단편적인 설교만을 가지고는 불충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진정한 지체의를 갖고 서로를 대할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전교회가 공동체성을 공유하고 교회 공동체 문화를 창출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며,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문화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디모데후서 3장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처참한 사회현상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참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여 대형교회가 되어감에 따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느 기관과 다름없는 곳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규모나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분명 하늘중앙교회는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로서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

3) 권문상, *부흥 여제인 1907 유교적 가족주의를 극복할 공동체 교회가 답이다* (경기도: 브니엘, 2006), 9.

4) Gary R. Collins,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기초*,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354-355.

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과 폭넓은 세계선교를 통해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하늘중앙교회는 주변지역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성전 건축이후 교회의 조직과 사역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때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많은 대형교회들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며 풍성한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웃에게 환영받는 건강한 교회로 다져질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하늘중앙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로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이 많은 장점과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은 성도들의 공동체적 삶을 이루는데 있어 기본 단위이며, 성도들의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기반이 되고,<sup>5)</sup> 그 곳에 속한 이들이 정서적, 영적으로 지원받고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이며, 신뢰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sup>6)</sup> 특성이 다양한 교회내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하늘중앙교회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소그룹 활성화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려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논문의 목적은 교회론에 있어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거나 교회 성장을 위한 단순한 목회방법론으로서의 소그룹을 연구하는데 있지 않으며, 성경과 많은 교회들을 통해 그 열매가 입증되어온 소그룹 사역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해지는 길을 찾는 것이다.

##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 이 논문은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서의 소

5) John Malliso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신재구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21.

6) Carl F. George, *다가오는 교회혁명 이렇게 대비하라*, 전의우 역 (서울: 요단, 2002), 83.

그룹과 소그룹의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연구해 나갈 것이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동기와 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밝히며, 2장에서는 공동체 교회의 개념과 근거를 사회학적, 신학적인 측면으로 고찰해보고 성경을 통해 나타난 공동체와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살펴봄으로써 교회 공동체 신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것이다. 3장에서는 소그룹이 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효율적인 목회적 방법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소그룹의 정의와 성경 가운데 나타난 소그룹의 모습들을 알아보고 지금의 시대적, 목회적 상황에서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할 것이다. 4장에서는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한국적 소그룹 목회를 정착시킨 풍성한 교회와 가정교회로 구성된 화평교회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5장에서는 하늘중앙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상황을 되짚어보고, 사역의 분석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목회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6장에서는 모든 성도들의 목회 비전에 대한 공유, 전교회적인 공동체 문화 창출이 선행되어야 모든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전략을 연구하고, 소그룹 체계를 강화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할 것이다. 7장에서는 6장까지의 연구들을 요약정리하고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연구되고 실행해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 제 2 장

### 공동체 교회 신학

20세기의 한국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지상과제로 삼고 달려왔으며, 그 결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교회성장은 정체되었고 사회를 향한 교회의 영향력은 너무나 작아져있다.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성숙한 교회는 섬김, 나눔, 사귄이 있는 참된 공동체이다.<sup>7)</sup>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로서 그 기능과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뚜렷히 하고 성경적인 원칙 위에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의 전환을 갈망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케팅 이론, 경영기법, 심리학, 그리고 인간관계론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론에만 사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이에 본 논문은 참다운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점을 찾을 것이다.

성경적 교회에 대해 알기 위해 우선, 교회의 어원과 성경적 교회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몸의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공동체 의식과 지체 의식이 회복되고 강화되어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살펴보고, 사회학적인 견지에서의 공동체 개념과 신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할 것이며,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대표적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되짚어 볼 것이다.

7) 이원규,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97.

## 제 1 절 몸으로서의 교회

이제 교회의 어원과 개념 정리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해 볼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몸과 같은 유기체이며, 이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은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섬기는 사랑의 삶,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 할 것이다.

### 1. 교회의 어원

구약에서의 교회는 카할(קהל)과 예다(עדה)라는 두 개의 개념어를 갖고 있다. 카할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했으며, 예다라는 단어는 민족적, 법적, 제의적(cultic)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였다. 큰 의미의 차이는 없지만 카할은 함께 모인 집단의 행동이나 목적을 나타내고 예다는 단순한 모임을 의미한다. 구약에서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집단(신 4:10, 9:10, 10:4, 18:16)의 모습에서 카할의 의미가 선명히 드러난다. 신약에서는 카할과 같은 뜻으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8장1절에 제일 먼저 사용되지만, 신명기 9장10절이 암시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를 전제하고 있었기에 사도행전 8장1절에 앞서 구약에서 모세에 의하여 광야로 인도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의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였다(행 7:38). 그리고 예루살렘에 국한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의미는 점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로 넓혀지게 되었다.<sup>8)</sup>

70인역에서 카할은 대부분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나 가끔 쉬나고게(συναγωγή)로 번역되기도 했으며, 예다는 주로 쉬나고게로 번역되었다. 신약에서는 70인역에서 빌려 온 에클레시아와 쉬나고게가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쉬나고게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임이나 그들의 공적인 예배를 위해 모였던 건물들을 나타내는데 쓰였지만,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가 신약의 교회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의 회집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에 더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ἐκκαλεω)를 기반으로 에클레시아

8) 이성희, *교회행정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40-41

란 단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 신약적 교회를 지칭했음을 알 수 있다.

‘주님께 속한’이란 뜻의 쿠피아케(*κυριακή*)라는 단어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게르만 계통의 표현들; 영어 ‘church’, 스코틀랜드어 ‘kirk’, 독일어 ‘kirche’, 스웨덴어 ‘kyrka’, 슬라브어 ‘cerkov’가 나왔기 때문에 게르만 계열에서의 교회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라틴어 계열에 속한 표현들; 라틴어 ‘ecclesia’, 스페인어 ‘iglesia’, 프랑스어 ‘eglise’, 이탈리아어 ‘chiesa’, 웨일어 ‘eglwys’는 에클레시아(*ekklesia, ἐκκλησία*)에서 파생된 용어들이다.<sup>9)</sup>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사실에서 교회의 개념이 바울서신에서 비로소 신학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점차 ‘성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몸인 교회의 머리’ 등의 용어 사용으로 교회론을 전개해 나갔다. 바울은 이와같은 교회에 관한 용어 사용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간의 특별한 연결이나 관련성을 드러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됨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된 사람들인 지체들의 관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sup>10)</sup> 이와같이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나타내기 위한 단어사용에도 깊은 고민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이 세상을 위한 그 분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속성과 구원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 2. 성경적 교회개념

교회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조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두신 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우선순위는 성경에 있다. 성경에서는

9)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24.

10) 문석호, *21c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추, 1998), 71.

교회를 다음의 세 가지로 표현한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마 16:18).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셨다(요 15:16, 요 15:19).<sup>11)</sup>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닌 세상에 실존하는 필수적인 공동체적인 모임이다.<sup>12)</sup>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창:12:2, 15:18), 그 후 모세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확증하셨다.(출6:6-7)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위반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렘 31:33)<sup>13)</sup>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지역과 민족에 한정된 언약이 아니었다. 로마서 9장 24절<sup>14)</sup>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들도 포함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바라볼 때 교회의 영원성을 이해하게 된다.<sup>15)</sup>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sup>16)</sup>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개념의 성경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17)</sup>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의 개념은 공동체적 개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개

11) 이요섭, *현대인을 위한 교회행정* (서울: 예빛서원, 2002), 18.

12) Howard Snyder,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72.

13) Palmer, O. Robertson,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291.

14)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도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롬 9:24)

15) Walter A. Henrichsen and William N. Garrison, *평신도 사역자를 제발하라*, 유재성 역 (서울: 나침반 1988), 120.

16)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전 1:2)

17)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27.

인적으로 부르셨지만,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공동체를 향해서 맺으셨던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다.(창17:7, 행 1:8) 그래서 로잔언약 제4항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sup>18)</sup> 이러한 까닭에 개교회들은 아무리 작고 빈약하고 보잘 것 없는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집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실현이다.<sup>19)</sup>

둘째,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성령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의 전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은 동일하게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3:16)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12-13)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그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함을 누리도록 계획해 놓으셨다.<sup>20)</sup>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그의 뜻에 따라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 속에서 성도들은 공통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의 서로 다른 지체가 세움을 입고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sup>21)</sup> 보혜사 성령께서는 화해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의 사역을 통해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엡 4:3).<sup>22)</sup>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에 참여해야한다. 공동체 교회에서의 관계는 사람들의 상호관계 뿐 아니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삼중의 관계이다. 이로써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체적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전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

18) 조종남, *로잔 세계 복음화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IVP, 1990), 58.

19)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76.

20) Randy Frazee,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35.

21) John R. W. Stott,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김기영 역 (서울: 엠마오, 1994), 30.

22)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 4:3)

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sup>23)</sup>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주심으로 세워지는 곳이다. 제자들과 120문도가 오순절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연약했던 믿음이 굳세어지고 능력 받아서 복음증거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였음을 기억해야한다.

성경은 교회가 성스러운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거룩한 곳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며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sup>24)</sup>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신다.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라는 비유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시작한 바울은 이후 27절에서는 더욱 직설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고 설명함으로써 유기체적 교회의 특성을 명확히 드러낸다.<sup>25)</sup>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분명히 하고, 교회는 유기체로서 하나의 일치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설명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이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셨다.<sup>26)</sup> 교회는 머리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다. 교회는 각 지체들이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그 기능을 조절하는 몸과 같은 공동체이다.<sup>27)</sup> 지체된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바울은 지체된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23)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41.

24) 이종성,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156.

25) 이요섭, *현대인을 위한 교회행정*, 16-17.

26) 이성희, *교회행정학*, 43.

27) Paul R. Stevens and Phil Collion,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0), 184.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고 했다.<sup>28)</sup>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 안에는 성육신적인 의미와 하나됨의 의미가 함축되어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의 성육신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 계시고 이를 통해 세상에 현존하신다는 것이며, 교회의 하나됨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전적으로 하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존재 형태라는 것이다.<sup>29)</sup>

### 3. 한 몸으로서의 교회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고전 12:27)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온전하게 자신의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갖는 관계의 시간성과 지역성에 관계없이 온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더 큰 몸의 일부이거나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다.<sup>30)</sup>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한 것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중심의 본질성과 그리스도와 성도간의 필연적인 연합성을 나타낸다. 즉, 교회의 유기체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연결되어있는 공동체이다.<sup>31)</sup>

교회 공동체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교회 공동체는 그 안의 다양한 지체들이 분담된 역동적 기능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교회 공동체에는 지체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생명력이 있다. 교회 공동체가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유기체인 이유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때문이다.<sup>32)</sup> ‘몸’은 공통의 신경을 가지며, 그 안의 모든 지체들은 다른 지체와 일치되는 공통의 생명이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밀접한 연결관계를 갖고 있어서

28) 이요섭, *현대인을 위한 교회행정*, 17.

29) Robert Weber,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53.

30)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115.

31) 김현진, *공동체 신학*, 33-34.

32) 이숙종,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 새 공동체를 지향하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423-424.

한 지체가 어떤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은 모든 지체들에게 이른다. 참된 공동체에서는 각 지체의 경험과 감정들이 다른 지체들과 의식적인 노력으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해진다.<sup>33)</sup>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유기체적인 관계성을 갖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자신들을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 보인다. 때로 어떤 이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 할지라도 그 인식의 범위가 너무나 작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앞에서 알게 되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이다. 그들이 언제, 어디에 있건 그곳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은 오늘도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닌다. 몸으로서의 교회는 건물이나 특정지역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며 당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한정되고 보편성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소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소명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 이 소명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행해야하는 사명의 세계적 성격을 설명한다. 사도들은 종말론적 소명을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받았다. 이러한 까닭에 교회가 그 사도성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소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sup>34)</sup>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장, 하나님 나라의 친교를 이루는 나눔의 장,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는 공동체적 교회가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 보이는 공동체적 교회는 값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히 성도들이 어떤 지역에 거함으로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가 유기체적 특성을 따라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어 생동감있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지체들에 대한 용납과 사랑, 섬김과 나눔이 필요하다.

33)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116.

34) 남기철, *현대신학해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66.



하나됨을 가로막는 이들은 많은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성, 인종, 경제적 신분, 문화와 같은 것들로 그들 주위에 벽을 만들어 놓는다.<sup>35)</sup> 자신들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개인들이 모인다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공동체안에는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살아있어야 한다. 공동체는 하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는 구성원들의 차이를 인정되며 다양한 생각과 기능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정과 타협의 과정으로 어우러진다. 상대방에 대한 대화와 타협, 이해와 양보로 하나되어가는 유기체가 공동체인 것이다.<sup>36)</sup>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모인 그의 백성들은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한다.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공동체 의식과 지체의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 4. 공동체 의식과 지체의식

한 몸에 대한 의식,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공동체 안에 있는 '나', '나'로 인해 영향을 받는 '너', 그리고 '너'로 인해 영향 받는 '나'를 바로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다. 지체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롬 12:4-5)<sup>37)</sup>은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와 생생한 연합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각 지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지체들 모두가 동일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sup>38)</sup>

35) Tommy Tenney, *God's Dream Team : A Call to Unity* (Ventura: Regal Books, 1999), 103.

36)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186-187.

37)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롬 12:4-5)

공동체의식과 지체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은사가 공동체 교회와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 은사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지체라는 개념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상호관계를 가지게 됨을 뜻하며, 각 지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를 수행함으로써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sup>38)</sup> 지체됨에 관한 믿음은 다른 지체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봉사를 통해, 겸손하게 자신이 가진 은사를 공동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선용함을 통해 표현된다.

모든 지체들은 한몸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만 각각의 지체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통일성있게 한몸으로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되고 모든 지체들이 상합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sup>40)</sup>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고립적이어서도 안되고 의존적이어서도 안된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소수의 전문인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할 때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sup>41)</sup>

하나님께서서는 그 백성들이 섬김과 협동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반영하는 연합과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다양한 은혜, 은사들을 몸된 교회에 주셨다.<sup>42)</sup> 많은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역과 은사를 부여받았기에,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들이 '몸'을 위해 행하는 사역에 대해 시기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다양한 기능의 상이함을 통해 몸이 온전해지고 하나를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고,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 모든 지체들이 인정하고 지지해주며 협력하는 노력을 해야한다.<sup>43)</sup>

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대표적인 모델로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으뜸으로 꼽힌다. 예수의 제자들과 120문도, 그리고 만여명의 회심자들로 구성되었던 예루살렘 공동체는 자신들의 재산을 유무상통하는 재산 공동체였

38) Marva J. Dawn, *희열의 공동체*, 이종태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4), 99.

39) 이성희, *교회행정학*, 43.

40)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제자, 1997), 105-106.

41) David Watson,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1), 355.

42) John Moore & Ken Neff, *이제는 목회방법이 거들너야 합니다*, 한상석 역 (서울: 나침반, 1996), 66.

43)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114-115.

다(행 2:44-45, 4:32-35). 예루살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들의 집에 살면서 물질과 영육 간의 교제를 나누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 도시 공동체의 모습을 띄고 있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삶의 형태라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공동소유의 형태는 로마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며, 이러한 공동소유적 삶의 확장은 마게도니아 교회에도 전파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신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여 예루살렘의 지체들을 섬겼다. 이 연보가 코이노니아의 정신이었으며, 물질적인 교제를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 삶의 행위였다.<sup>44)</sup>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연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개체교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기쁨과 고통을 같이 나눈다.

그러면, 성도들이 보편적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으로 인해 성도들이 참된 공동체성을 갖고 지체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본성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가능성을 찾아 보겠다.

## 제 2 절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동체성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된 성도들이 상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공동체와 지체들간의 관계 속에 내주하시며 공동체가 건강하고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몸된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 말은바 자신의 은사를 올바르게 선용할 때 참된 공동체가 실현됨을 배웠다. 이제 교회가 참된 공동체됨과 성도들이 지체됨에 대

44) 김현진, *공동체 신학*, 97-99.

한 신학적 기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통해 살펴 볼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교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구별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근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실제적인 본질에 대해 이해해야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가 만드신 공동체 안에 인간을 두셨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공동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유기체적 존재로 계시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 자율적으로 신적인 역사를 행하신다.<sup>45)</sup>

삼위일체론은 하나님께서 동일본질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다.<sup>46)</sup> 삼위일체론은 한 하나님이 구분되어 있기에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가진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 하나의 신적인 본질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형성하는 신성이다. 한 하나님은 단수가 아닌 삼위일체의 세 지체들이라는 복수로 이루어진다.<sup>47)</sup> 하나님(단수로 묘사된)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복수)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됨 안에 복수 개념으로 세상의 처음을 말씀하신다. 삼위일체(복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창조 기사로부터 삼위일체 교리가 출발한다.<sup>48)</sup> 창조기사 속에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히브리어 엘로힘(Elohim)이라는 단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엘로힘의 끝부분인 ‘힘’(him)은 히브리어에서 세 개 혹은 그 이상을 나타내는 복수어미로 쓰였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사역을 행하셨다. 창세기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성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라고 했으며, 골로새

45)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37-238.

46)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4), 691.

47)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신옥수 역 (고양: 크리스찬 다 이제스트, 2003), 118.

48) Bill Donahue & Russ Robinson, *소그를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30-31.

서 1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같이 행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sup>49)</sup>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역을 하셨다. 특히,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 1:26)<sup>50)</sup>라는 구절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모습을 강조하여 설명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에서도 동역하셨다(창11장). 인간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기 위해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도 복수로 나타난다(창 11:7).<sup>51)</sup>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공동체적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더욱 확실해진다. 예수님의 구속적 죽음, 온 세상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행위였다. 그리고 공생애 기간 동안 성부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셨던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셨다(마 28:19).<sup>52)</sup>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수로서, 삼위일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전제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공동체적 본질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삼위는 부족함이나 결함 때문에 각각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도 다른 하나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 관계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들이 모두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 밝히 보여졌으며, 이 그리스도의 사건은 삼위일체적 공동체적 행위였다.<sup>53)</sup>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상호 간에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삼위일체적인 세 위격이 다양성을 포함하는 통일성을 구성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49) Kay Arthur, *하나님의 이름*, 유운호 역 (서울: 프리젠프, 1996), 22-23.

50)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51)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창 11:7)

52)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창 28:19)

53) 최성수, “교회 공동체성의 근거로서의 삼위일체,” *목회와 신학* 2000년 10월호, 219.

성령은 함께 신적인 존재와 본질을 구성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가페(agape, 사랑)로 인해 통일성을 가지며 서로 교통하고 교제한다. 사랑은 사랑을 주는 이와 받는 이가 있음을 전제하는 관계적인 용어이다. 신학자들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 행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지체들의 상관성, 동역관계, 상호의존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 상호 침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sup>54)</sup> 이는 삼위 하나님 인격체들은 서로의 생각과 의지가 침투되고 받아들여짐으로써 서로 용납되고 이해되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각 위격이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하나의 생각과 의지를 갖는다. 서로의 생각과 의지가 서로에게 침투되고 순환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생각과 의지가 공유되는 것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를 자신 안에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공동체적 하나님으로 살아가신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비유처럼 유기적인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사신다.<sup>55)</sup>

이러한 삼위일체적 페리코레스시스적 특성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격들과 공유하는 사랑을 성도에게 베풀어 주고,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인으로서의 삶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매개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공동체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반영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모든 피조물로 확산하는 역할을 감당한다.<sup>56)</sup>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해야하는 책임을 갖는다.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특성이 보여지고 공동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과 성취가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마 16:16)이시며, 비인격적인 실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실재이다. 하나

54)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120-121.

55)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251.

56) Emil Bartos, *Deification in Eastern Orthodox Theology* (U.K.:Paternoster Press, 1999), 255.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0집 (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03), 285.에서 재인용.

님의 존재 안에 운동력과 생명, 인격적 관계와 사랑의 주고받음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 고립되고 독립된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인격은 관계적인 실재로서 상호주체성, 공유된 의식, 신실한 관계, 서로 주고 받는 사랑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다.<sup>57)</sup>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관계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sup>58)</sup>

첫째, 창조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리이시며, 인격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의 인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즉,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 가운데에서 잘 드러난다. 그 사건은 종말론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놓으신 계시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원래부터 관계 가운데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교제(koinonia) 가운데 있는 인격들의 신비로서 존재하신다. 진정한 교제는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며, 참된 교제 가운데 있는 인격체들은 행복, 희망, 고통, 책임을 함께 한다. 진정한 교제의 관계 속에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내적으로는 신적 인격들 사이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교제는 우주 안의 모든 피조물로 확산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제에 대한 확산은 성서의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밝히 드러내주고 교회의 존재 의미를 알게 해 준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구속 사역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공동체로 관계하시며, 공동체 속에 관계를 맺으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완성하신다.<sup>59)</sup> 그래서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였다.<sup>60)</sup> 이

57) Daniel L. Migliore,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장경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110-112.

58)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0집, 274-275.

59) Gareth W. Icenogle, *The Church in Ministry through Small Group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1-2.

와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공동체적 특성은 그가 창조하신 인간과 공동체에 담겨져 세상에 투영된다.

이제, 이러한 공동체를 바라보는 일반 사회학의 관점과 이해에 대해 살펴보겠다.

### 제 3 절 공동체의 사회학적 의미

공동체라는 말은 라틴어로는 *Communitas*, 영어로는 *Community* 라고 쓰여지며, *Common* (공동의), *Communal* (공공의, 자치적인)이라는 형용사 또는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라는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지역성)과 사회적 단일성(공동의식) 그리고 문화적 동일성(공동규범)을 가지는 공동 사회적 집단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는 동질성을 가진 일정한 인구가 자연적 생태적 지리적으로 한정되고 근접한 지역에 살면서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고 공통의 가치판단과 생활 방식을 갖고 많은 경우 협동생활을 이루는 모임이다.<sup>61)</sup>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사용되는 공동체라는 용어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으로 시작해서 동료집단, 지구의 북반부와 남반부를 지칭하는 지역사회까지를 의미하기도 하며, 지역단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 이데올로기나 공유특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의 의미는 사회적 상황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데, 이는 공동체가 인간의 생존방식이자 삶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sup>62)</sup>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존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여서 어떤 형태로든 이웃과 공동체와 관계된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다.<sup>63)</sup> 인간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갈망한다. 그 관계 가운데 보고 듣고 느끼며 성숙해 나가려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이다.

60) Roberta Hestenes, *Growing the Church through Small Group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2), 5.

61) 이원규, *종교사회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194.

62)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2001), 22-23.

63) 박봉배 외, *기독교윤리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7.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사회학자인 퇴니스도 동의하는데, 그는 그의 저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1887)에서 인간의 유대 관계를 자연의지와 합리의지로 구분한다.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게마인샤프트적 관계는 부자, 친지, 친구와 같이 혈통과 우정으로 엮어진 것이며, 게젤샤프트적 관계는 계약적이고 사무적인 관료계급 또는 현금 거래의 타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sup>64)</sup> 퇴니스가 말하는 자연의지는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임을 밝히는 것이며, 게마인샤프트적 관계는 존재론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를 잘 표현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더욱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공동체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한 행위일 뿐인 것이다.<sup>65)</sup>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있다.

올바른 공동체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권리가 말살되는 곳이 아니다. 개인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활동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도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개인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을 본회퍼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정의하고 몰트만은 “타자와 더불어 있는 존재”라고 주장한다.<sup>66)</sup>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도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자아의 실현도 개인 자유의 보장도 개인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sup>67)</sup> 비록 자유주의자들이 공동체에 대해 부족한 인식을 나타냈을지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어서 의미있는 일이다. 이제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진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다.

공동체란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에<sup>68)</sup> 존재하는 소규모의 자치적 집단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공동의 운명에 영향을 받는 개체이다. 공동체는 모

64) 이원규, *종교사회학*, 197-199.

65)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178.

66) 박봉배 외, *기독교윤리학개론*, 9.

67)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179.

68)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논리적인 선행을 이야기한다.

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자치체이기 때문에 지배자가 존재하는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사회집단과는 다른 모임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라는 용어 속에는 유토피아적 이미지가 포함된다.<sup>69)</sup> 아리스토텔레스도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담은 공동체를 이야기했다. 그는 공동체를 가족의 집합, 자연적 창조로 바라보았으며,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일 수 밖에 없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인간을 사회적 인간으로 사회화시키는 확대된 가정이 공동체라고 여겼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쟁적 시장원리가 사회에 적용되면서 전통적 상부상조의 관계들은 경쟁과 투쟁의 관계로 바뀌어갔다. 인간의 존재마저 물질가치로 환원시키며 비인간화와 분업 및 전문화로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킨 것이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준 산업화의 대가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많은 이들은 유토피아적인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아닌 스스로 구현해 나가야 하는 현실세계의 목표로 공동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바람은 물질문명의 대가로 치르게된 인간소외에 대한 깊은 반성, 물질이 인간의 존재를 능가할 수 없다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sup>70)</sup>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보다 삶의 질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소외되었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삶의 장, 인간이 다시 세워야 하는 이상세계로 여겨지고 있다.<sup>71)</sup>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의 가치를 깨닫는 것처럼,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만 찾아지는 존엄성을 잃고 소외와 차별로 아픈 시간을 보낸 후에야 다시 공동체에 눈을 돌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물질문명 속에서 살아오면서 참된 가치를 추구할 힘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참된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하고 삶을 통해 보여줄 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책임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 공동체 교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스캇 펙(Scott peck)은 공동체를 “서로 정직하게 의사 전달하는 법을 배워 그들의 관계가 자제라는 가면보다도 더욱 더 깊어지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서로서로를 즐겁게 해 주며 다른 사람의 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69) 남경태, *깨넘어 사전* (경기도: 들녘, 2006), 39-40.

70)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19-21.

71) Ibid., 29.

의 집단"이라고 정의한다.<sup>72)</sup> 그는 종파나 신에 대한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임을 간과한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의 이러한 요소를 잘 이해했던 진 베니어(Jean Vanier)는 '한 지붕 아래서 타인들과 살고, 인간의 존재와 타인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일하기 위해 그들 자신이 속해 있던 환경을 떠난 사람들의 집단'이 공동체라고 정의한다.<sup>73)</sup> 자연발생적인 모임이나 단순히 어떤 개인적 목적을 위해 모인 모임을 공동체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와 이웃,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던 시절의 자리를 떠나 함께 모인 자들의 모임이다. 여기에 모인 이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장소로서의 공동체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내의 관계 가운데 가시화되고 확증된다.<sup>74)</sup>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존재론적인 것이며, 시대적 변화로 인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지기도 했지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성을 지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도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는 장으로서 참된 공동체가 되어 인간의 존재론적 갈증을 풀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되돌아보았다. 이제 교회가 공동체임에 대한 신학적 근거들을 살펴보겠다.

#### 제 4 절 공동체 교회의 신학적 근거

루터는 성경을 번역할 때 교회라는 말을 피하고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72) M. Scott Peck, *The Different Drum: Community - Making and Peace* (New York: Touchstone, 1987), 59. Rod Wilson, *삼당과 공동체*, 김창대 역 (서울: 두란노, 1997), 23에서 재인용.

73) Jean Vanier, *Community and Growth*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1989), 10-11. Rod Wilson, *삼당과 공동체*, 24에서 재인용.

74) Ibid., 24.

이 공동체는 장소의 개념, 가정 공동체, 집회의 의미도 망라하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공동체에 대한 개념과도 연관성을 지닌 총제적인 교회로 지칭 될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교회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주장한다.<sup>75)</sup> 이렇게 신학자들이 교회를 공동체로 보는 신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교회가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때문이다. 셋 이상이 모일 때 공동체가 형성된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특성상 오직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함 가운데 계신다.<sup>76)</sup>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안에 거하며', 서로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어 주고',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즉, 우정의 경험, 서로 보살피는 가족의 관계, 자유롭고 동등한 인격사이의 포용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기반을 두며, 지상의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고, 지배의 관계가 아닌 서로 평등한 가운데 용납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형성된다.<sup>77)</sup>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적 존재, 사회적 존재이심은 세상에 포용적인 공동체를 세우는데 있어서 근원적인 힘이 된다. 존재론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과 함께, 또 피조물들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유지하기를 원하신다.<sup>78)</sup>

공동체 교회의 또 다른 신학적 근거는 교회의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동체적인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75) 대한기독교서회, *그리스도교 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85.

76) Ralph W. Neighbour, Jr, *셀목회 지침서*, 125.

77) Daniel L. Migliore,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114.

78) Ibid., 112-114.

인간이 구성하는 공동체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속성을 담고 있다.

창세기에 보면 삼위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신다.<sup>79)</sup>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 2:18)라고 말씀하시며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신다. 이는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형성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공허감과 더불어 사람 형상의 공허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sup>80)</sup> 공동체 교회의 존재가치가 여기에 있다. 모든 인간이 가진 공허감은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을 담은 진정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만 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내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공허감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피상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은 진실하고 깊이 있는 신뢰 관계를 나눔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의 원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동산 가운데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후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동체적 속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실제적인 사귀의 공동체를 형성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개체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서로 연합하여 본질적인 인간됨을 이루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공동체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한 인간과 사귀을 갖기 원하셨다. 그래서 태초부터 신적 공동체는 인간 공동체와 더불어 상호 공동체로 존재했다.<sup>81)</sup>

성경은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로 구성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

79) Ralph W. Neighbour, Jr, *셀목회 지침서*, 126-127.

80) Andy Stanley &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이종순 역 (서울: 디모데, 2006), 30-31.

81)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멘토, 2002), 44.

조하신 공동체는 무너졌다. 공동체의 파괴로 인해 세상은 병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관계를 맺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공동체를 삼으셨다. 그러나 인간의 끝없는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파괴되었다. 지속적인 공동체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공동체의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공동체적 관계, 구원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축복, 구원의 길을 이어오셨으며 오늘도 이어가고 계신다.

구원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새롭게 된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과의 화해, 인간 상호 간의 교제, 모든 피조물들과 조화를 누리는 구속받은 백성의 수립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라는 목표가 하나님의 활동의 중심에 있으며, 공동체가 세상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오순절 성령강림도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서로 화해를 이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구분을 뛰어넘는 하나의 공동체, 모든 국가와 사회적 경제적 지위, 그리고 남녀를 어우르며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sup>82)</sup>

공동체 교회는 제도나 기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존재방식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세워졌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목회적인 기능의 권위가 세워진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는 인간이 만든 어떤 기관이나 조직들과도 다르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현실화 시키시기 때문에 교회는 은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83)</sup> 그래서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시기 위해 공동체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알리시고 실행해 가시는 것이다.

82)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188.

83)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0집, 280, 287.

## 제 5 절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

공동체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것은 사역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을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에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를 기점으로 하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 가운데 공동체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sup>84)</sup> 그래서 공동체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세상에 허락하신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 1. 구약에서의 공동체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공동체적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셨다.

우선, 노아 가족 공동체와 아브라함 가족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살펴볼 수 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공동체를 남기셔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셨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공동체와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계획을 계속 행하셨다.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이루어져갔다.<sup>85)</sup> 노아와 그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 패역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으며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뜻을 성취하셨다.<sup>86)</sup>

또한, 모세와 이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들이 조직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과중한 직무로 탈진해가는 모세와 리더에게 문제의 해결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다. 이를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중간 지도자를 세워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84)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17.

85) Ibid., 19.

86) Jimmy Long, *소그룹 리더 핸드북* (서울: IVF 자료 개발부, 2006), 28-29.

이끌 것을 권고한다. 이는 모세가 과거에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 몸에 베어있던 권위적이며 수직적 구조의 바로적 코칭 모습에서 믿음과 지지에 기반을 둔 책임과 권리분담의 이드로적 코칭 모습으로의 전환을, 리더십 양태의 완전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sup>87)</sup> 작은 공동체를 조직하고 권리와 책임을 다른 이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 명, 오십 명, 백 명, 천 명으로 나누고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출 18:13-27).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작은 공동체들을 조직함으로써 임무와 권위를 분담시킨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 효과적인 공동체로 바뀌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은 리더십 전환과 작은 공동체 단위의 편성에 따라 목회자의 탈진방지, 성도들의 다양한 요구 충족, 평신도 지도자 양육 등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 2. 신약에서의 공동체

신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와 초대교회 공동체이다. 예수님께서는 열두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치시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셨다. 다양한 성품을 가진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여러 번의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믿지 않는 자들도 주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sup>88)</sup>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는 애국자와 매국노로 알려진 세리가 교제를 나누었고, 어부와 농부가 함께 하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배경의 열두제자들과 3년간 함께 지내시면서 사랑과 용납, 돌봄과 격려의 방법을 삶으로 가르치셨다.<sup>89)</sup>

예수님과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공생애 기간 동안 주로 소수에게 그 삶을 헌신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많은 이들을 끌어 모으는 것보다 작은 공동체를 통해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90)</sup> 예수님은 12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양육하셔서 그

87) 정진우, *21세기 리더십은 코칭이다* (경기도: NCD, 2004), 34-35.

88) Ron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9), 21.

89) Ralph W. Neighbour, Jr, *셀목회 지침서*, 131.

90) John Malliso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24.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려 하셨다.<sup>91)</sup>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동체적 삶을 통해 전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성장했다.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거하면서 형성된 초대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의 전형으로 발전하면서 설교, 교육, 친교, 봉사 등의 다양한 사역을 수행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주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삶과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였으며, 성령의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과정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평등과 일체감으로 하나되었다. 다양한 계층들과 상이한 환경 속에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식탁에 모여 자신들의 소유와 재산을 공유하고 영적인 체험을 함께 나누었다. 구성원들은 개인의 행복과 구원에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공동체의 선과 구원을 추구하였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공동체의 모든 권위를 두었다.<sup>92)</sup>

바울서신과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큰 지역의 명칭으로 불리운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공동체인 가정교회들이었다(행 16:11-15, 40, 롬 16:23, 고전 16:19, 골 4:15).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 가면 갈수록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작은 공동체들이 초대교회의 중심을 이루었다.<sup>93)</sup>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들로 구성되었으며, 서로를 돌아보아 필요를 채우며 참된 신앙의 가족을 형성했다. 이들의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집회에 참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생활 그 자체였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의 생활에 함께하는 것이었다.<sup>94)</sup> 이와같이 신약의 대표적인 공동체 모델인 초대교회는 예수의 공동체를 본받아 가족과 같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아 함께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싸매고 부족함을 채우며 자신들의 삶을 나누었다. 초대교회는 이론적이거나 피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맛보며 살아가는 실제적 삶의 공동체였다.

91) Jimmy Long, *소그룹 리더 핸드북*, 29.

92) 이숙종,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420-421.

93)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24.

94) Ralph W. Neighbour, Jr, *셀목회 지침서*, 147.

### 3.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초대교회 이후 영적 개혁의 시대에는 반드시 많은 이들의 영적 무지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들이 있었다.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끼쳐 강력한 변화를 이끈 모라비아 교도와 같은 공동체들이 있었으며, 이후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로 가정교회, 소그룹, 셀교회 등이 모델로 세워졌다.<sup>95)</sup>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다. 성경을 통해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동체를 통해 가시화, 구체화 되어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맛보기 원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웨슬리의 공동체 운동을 위시하여 몇가지 공동체의 모습들을 되짚어봄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확증하려한다.

요한 웨슬리는 소그룹 복음전파의 개척자였다. 그는 18세기 말까지 10,000개 이상의 소그룹을 발전시켰고,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그의 소그룹 시스템에 참가했다. 웨슬리는 결신보다 제자도에 큰 관심을 두었으며, 냉담한 세상에서보다 따뜻한 기독교 환경에서 사람들의 신앙이 더 효과적으로 자라난다고 보았다.<sup>96)</sup> 밴즈(Bands)로 형성된 소그룹은 나이, 성별 그리고 결혼여부에 따라 나뉘어진 평균 6명의 조원이 같이 모여 자신이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언행에 대한 죄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감리교인은 반드시 목회적 지원과 돌봄을 줄 수 있는 속회(Class Meeting)에 가입했다. 이 작은 공동체들을 통해 회심과 새로운 헌신, 구제와 선교의 활발한 모습들이 나타났다.<sup>97)</sup>

신도회(Society)는 웨슬리를 중심으로 신앙훈련을 같이 하던 사람들에게 의해 조직되었고, 이 신도회를 기초로 시작된 속회(Class Meeting)는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돌보기”가 목적이었기에 속회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속장은 속회

95) Joseph Umidi & Lance Wallnau, *변화와 성장의 에너지, 코칭*, 편집부 역 (경기도: NCD, 2005), 84-85.

96) Joel comiskey, *Home Cell Group Explosion : How Your Small Group Can Grow and Multiply* (Houston: TOUCH, 2002), 23.

97) John Malliso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30-31.

원들의 영적생활을 돌보고 정기적으로 웨슬리에게 보고하여 지도를 받았다. 웨슬리는 온전한 인간변화, 성화는 관계의 변화에서 시작되며, 인간의 변화는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포함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작은 공동체를 조직하여 실천했다.<sup>98)</sup> 웨슬리의 작은 공동체 운동은 교회와 교단을 넘어서 그 시대를 깨우고 변혁시키는 힘있는 사역이었다. 그의 공동체 운동은 구체적인 행동과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사회 참여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성경적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시대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원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었다.

또한, 신앙의 암흑기에 부패한 교회와 이교도들의 도전으로부터 진리를 지켜온 공동체들이 있었다. 6세기경 베네딕트 교단은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고, 작은 공동체 형태의 소수의 수도사들은 중세 유럽을 휩쓸던 이교도의 도전에서 교회를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12세기 초에는 왈도파라는 모임이 형성되어 증가했던 교회 내의 부패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모임들이 종교개혁 전까지 지속되었다.<sup>99)</sup> 이렇게 이어온 공동체는 한동안 그 중요성이 잊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공동체를 통한 성서적 방법의 목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음을 보면서 많은 이들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고 있으며, 작은 공동체들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작은 공동체 운동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대표적인 한국 교회로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들 수 있다. 23,000 셀 그룹으로까지 성장한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조용기 목사는 이 교회의 성장 비결을 작은 공동체 조직에서 찾는다. 그는 각 소그룹과 리더들에게 소그룹 재생산의 목적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목사들이 그의 지도를 따라 소그룹 목회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0,000개 이상의 소그룹이 활동하는 콜럼비아 보고타에 있는 국제 은사선교교회의 켄자르 카스텔라노스 목사, 5,300개 이상의 소그룹이 활동하는 엘살바도르의 산 살바도르에 있는 엘림교회의 켄지오 솔로자노 목사,

98) 연합감리교회출판부, *개체교회 지도자 지침서 2005-2008* (미국: 연합감리교회출판부, 2004), 162-164.

99) Jimmy Long, *소그룹 리더 핸드북*, 36.

7,000명의 신도들이 500개의 소그룹을 통해 양육되고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신앙 공동체 침례교회의 로렌스 롱 목사 등이 조용기 목사의 소그룹 목회 사역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역자들이다.<sup>100)</sup>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이전 모습과는 다른 사랑이 넘쳐나며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출현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우리의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며 하나님과 타인 그리고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가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장하고 그의 뜻을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전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sup>101)</sup>

이번 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유기체적 공동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선용하여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 성도들이 한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고 인간을 공동체적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이며, 교회는 공동체의 파괴로 인해 소외와 고독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참된 공동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역사 속에서 많은 공동체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공동체들을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으며 오늘도 성취해가고 계신다.

제 3 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길을 찾을 것이다. 오늘의 시대 상황과 한국교회가 지닌 문제들을 살펴보고 소그룹이 공동체성의 회복에 있어서 어떠한 유용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100) Joel Comiskey, *셀 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33-34.

101) Jimmy Long, *소그룹 리더 핸드북*, 30-34.

## 제 3 장

###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

지금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로써 유기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회가 참된 공동체가 되는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된 성도들은 공동체의식과 지체의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 대해 관용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교회가 참된 공동체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함을 알았다. 이제 하나님의 기대하심,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사역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본장은 소그룹 사역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숙하는데 효율적인 사역의 모델임을 밝히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소그룹이란 무엇이며 그 특성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그룹 사역의 신학적 근거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소그룹 사역이 왜 이 시대와 현대교회에 필요한지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 시대적 상황과 현대교회가 처한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회적 방안으로써 소그룹 사역이 갖는 장점들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 제 1 절 소그룹에 대한 이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소그룹에 속해 있는 존재이며, 살아가면서 더 많은 소그룹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간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소그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세상에는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많은 소그룹들이 있지만 실상 소그룹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여러 학자

들의 소그룹에 대한 정의와 소그룹이 갖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소그룹의 정의

세상에는 수많은 소그룹이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소그룹에 대한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일반적 정의와 공동체 교회에서의 정의에 집중하여 살펴보겠다.

컬트 레윈(Kurt Lewin)은 “그룹의 본질은 구성원들의 유사성이나 이질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서로 감정의 교류가 없으면 아무리 적당한 인원이 모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진정한 소그룹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우브레이 피셔(Aubrey Fisher)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개인들의 모임이 소그룹이라고 하였으며, 젠더(Zander)는 “그룹은 빈번한 상호작용에 참가하고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로서 그들을 한정하며, 다른 삶들에 의하여 그룹에 속하였다는 인정을 받으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규범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동일시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호 의존하는 목표를 추구하며, 연합이란 공동적 자각을 가지며, 환경에 대하여 통일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가질 때 온전한 그룹이 된다”고 말한다.<sup>102)</sup> 이와같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소그룹은 관계성이 전제된 모임이다. 소그룹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다른 이들과 감정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의존되어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소그룹이다. 그러면 공동체 교회에서의 소그룹은 어떤 모임인가?

맥브라이드(Neal F. McBride)는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은 자발적이며 계획적인 모임으로서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3명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구성원들은 그룹의 성공과 상호간의 교제와 성숙을 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정의한다.<sup>103)</sup> 맥브라이드도 소그룹 구성원들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소’그룹으로써 모임의 인원과 시간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소그룹이 갖는 자발성과 공동의 목표를 중

102) 전요섭, *인간관계론* (서울: 은혜, 1994), 67-68.

103) Neal F. McBride, *How to lead Small Groups* (Menasha: NavPress, 1990), 24-25.

요하게 여겼다.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는 “기독교인들의 소그룹은 국제적이며, 규칙적인 시간계획아래 3명에서 3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활의 가능성 발견과 성장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대면하는 모임”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소그룹이 믿음에 기반하여 신앙적 성숙이 있는 모임이 되어야하며 인원과 시간등에 있어서 규정이 있는 준비된 모임이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의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일반적이며 기독교적인 소그룹으로서의 특징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게레스 아이스노글(Gareth Icenogle)은 다음과 같이 소그룹을 정의한다.<sup>104)</sup>

“기독교적 소그룹이란 성령의 도우심과 잘 준비된 리더십을 따라, 기도와 친교,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안전한 가족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선교를 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세 사람 이상 삼십 명 이하의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이들은 격려와 책임을 가지고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인정하여 사용하며,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죄에 직면하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차이를 극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가운데 복음을 나눈다. 또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영하여 동화시킨 후 치유와 배움과 제자화, 섬김을 위해 그들을 파송하여 그룹과 개인의 희망을 전하고 변화를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공동체에 함께 할 성숙한 남성과 여성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그룹은 의도적인 모임이다. 타인에 의해 강요된 모임이 아니라 그룹을 소개받은 사람이 자의로 결정하여 참여하는 모임이다. 소그룹은 대면하여 모이는 모임이다.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이다. 소그룹은 3명에서 12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모임의 인원이 열두명을 넘어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그룹은 역동성을 잃기 시작한다. 소그룹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다. 확실한 목적이 없이 모임을 시작하면 그 소그룹은 오래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 소그룹은 성장을 위한 모임이다. 구성원들의 연약한 믿음의 상태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

104) Gareth W. Icenogle, *The Church in Ministry through Small Group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32-33.

속되어지도록 돕는 곳이 소그룹이다.<sup>105)</sup> 소그룹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확대가족이며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기본 단위이다. 구성원들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필요를 돌보며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sup>106)</sup>

결론적으로, 소그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모인 3-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지지해주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여 나눔과 섬김, 기도와 찬교, 치유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임이다.

## 2. 소그룹의 특성

소그룹은 공동체가 갖는 특성을 공유한다. 소그룹 자체가 자발성과 관계성을 기초로 하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소그룹 목회 연구소를 개설하여 이끌고 있는 권문상 교수는 진정한 공동체가 갖는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sup>107)</sup>

첫째, 진정한 공동체는 자발성, 자율성을 갖고 있다. 효과적인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자발성은 “외부적인 강제력이나 원인없이 행동하거나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된다. 풍부한 전통과 예식을 바탕으로 계획되는 집단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단은 자발적으로 형성된다.<sup>108)</sup>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룬다. 타율적인 참여와 수동적인 활동으로는 효과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 구성원들이 주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체는 구성원에게 자치적 행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공동체가 자치성을 보장해 줄때 구성원은 공동체적 일체감, ‘우리’의식을 갖게 되고 이타적 헌신이 가능해진다.

둘째, 공동체에는 다양성이 있다. 공동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기능을 가진, 개개의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유기체적 조직이다. 구성원들

105)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19-20.

106) Ralph W. Neighbour, Jr, *셀목회 지침서*, 123.

107)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184-191.

108) Randy Frazee, *21세기 교회 연구 : 공동체*, 132.



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무시하고 단일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서로 조정과 타협의 과정을 거친다.

셋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인간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배타성보다 상호 의존성이 존재한다. 구성원들이 사회적 우열이나 다름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인다. 소그룹은 상호 이해와 수용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곳이 될 수 있다. 상호 이해와 수용은 교회가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랑과 수용의 관계이다.<sup>109)</sup> 기포드 핀초트(Gifford Pinchot)도 구성원들의 상호 관계를 강조한다. 그는 구성원들이 소그룹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안전함과 사랑 받음을 느낄 때 그 소그룹의 사명과 가치에 열정을 가지게 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살고 있다고 믿게 될 때 소그룹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게 된다고 말한다.<sup>110)</sup> 또한, 바울도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함으로 공동체가 세워짐을 강조한다(빌 2:1-5)<sup>111)</sup>.<sup>112)</sup> 상호 의존적인 구성원들은 비록 자신의 소유와 강한 정신력으로 독립할 수 있을지라도,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는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글(고후 8:13-15)<sup>113)</sup>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은 넘치는 소유를 쌓아두거나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필요이상의 것들을 소비하지 않는다.<sup>114)</sup>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109)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48.

110) Kenneth O. Gangel, *최강의 팀워크를 만드는 전략노트*, 김창동 역 (서울: 디모데, 2003), 209.

11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1-5)

112) Randy Frazee, *21세기 교회 연구 : 공동체*, 73.

113)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고후 8:13-15)

114) Randy Frazee, *21세기 교회 연구 : 공동체*, 208.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그가 속한 그룹과 다른 구성원들을 섬긴다.

넷째, 공동체는 그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진정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상호 의존성,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은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공동체의 밑바탕에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없는 공동체는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바나바는 구성원들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한 좋은 모델로 제시되는 인물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행 4:34-37). 바나바는 자신이 속한 교회를 신뢰하였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다소의 무서운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한 후,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했다(행 9:26-27). 분명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이들이 무서운 박해자,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믿었다. 또한, 바울이 마가를 신뢰할 수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 2차 전도여행에서 배제시키려 했을 때에도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믿어주고 그와 함께 구브로로 가서 사역을 하였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 초대 교회의 뛰어난 젊은 리더를 계발시키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셨다.<sup>115)</sup> 훌륭한 리더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를 믿고 기다려주는 신뢰의 사람이 요구된다. 깊이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공동체야말로 참된 사역자가 태어날 수 있는 요람이다.

건강한 기독교 소그룹은 권문상 교수가 말하는 공동체의 특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건강한 소그룹에는 사랑이 있다.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2-3)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타인의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자발적으로 다른 이와 자기가 속한 소그룹의 하나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은 신뢰와 더불어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동체와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방식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이러한 사랑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살아 가야 한다고 가르치셨다(요일 4:10, 19).<sup>116)</sup>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자신만을 사랑한

115) Kenneth O. Gangel, *최강의 팀워크를 만드는 전략노트*, 217-218.

116)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10), “우리가 사랑함은 그

다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다.<sup>117)</sup>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우리와 맺고 있는 사랑에 의한 관계로 우리도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둘째, 소그룹에는 돌봄이 있다. 소그룹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한다. 소그룹에서 깊이 있는 사귀를 갖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각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함께 채워나감을 뜻한다.<sup>118)</sup> 건강한 소그룹에서는 초대교회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필요들이 나눔과 섬김의 행위들을 통해 채워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그룹 속에서 가시화되는 것이다.

셋째, 소그룹에서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소그룹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서 회복되는 곳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정죄함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때 회복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sup>119)</sup> 소그룹에서는 고통 중에 있는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지고 평안함을 누린다.

넷째, 건강한 소그룹과 그 그룹의 구성원은 성장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은 각각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사역함으로써 자신과 전체 몸의 성장을 이루어간다(엡 4:15-16)<sup>120)</sup>. 소그룹도 이와같은 유기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그룹은 구성원들을 성장시키며, 동시에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한다. 소그룹은 탄생, 성장, 퇴보, 죽음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여느 생명체와 같은 유기적 조직체이다. 트레버 타이슨은 소그룹을 유기적 조직체로 바라보고 활동 단계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121)</sup> 첫째, 형성기이다. 조원들이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기대와 소망, 의심과 불안의 감정을 갖는 소그룹 초기의 모습이며, 이때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소그룹은 목적과 앞으로 나아갈 바를 결정하고, 리더는 조원들에게 안정감과 목표에 대

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117) Randy Frazee, *21세기 교회 연구 : 공동체*, 79.

118)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47.

119) Ibid.

120) Ibid., 93,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5-16)

121) John Malliso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134-135.

한 확실한 인식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격동기이다. 조원들의 개인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긴장이 생기고, 소그룹을 제어하려는 조원들이 생겨난다. 활동의 정체와 다른 여러 요소들로 인해 혼란, 좌절, 의욕상실을 느끼고 냉담해지기도 한다. 갈등 관리 능력이 리더에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셋째, 정상기이다. 격동기를 잘 이겨 내면 조원들이 타인과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고 안정감과 자유를 느끼며 소그룹의 목표를 위해 단결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 조원들의 리더에 대한 의존이 덜해지고 조언자, 격려자로서 리더를 바라보게 된다. 넷째, 활동기이다. 조원들 각자의 소그룹에 대한 기여를 인식하면서 갈등이 간혹 표출 되더라도 전보다 잘 해결해 나간다. 조원 개인의 필요, 소그룹의 과업, 그룹 활동의 유지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며 열매맺는 소그룹의 모습을 보인다. 다섯째, 종료단계이다. 소그룹 초기의 목표를 확인하고 성취했음에 동의하는 시점에 소그룹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이때 리더는 조원들이 느끼게 될 기쁨, 슬픔, 아쉬움에 대해 인식하고 격려, 감사의 표현과 함께 적절한 방법으로 소그룹의 종료를 계획한다. 각 단계들은 퇴보와 정체의 시기들을 맞으면서 불규칙하게 진행된다. 정확하게 단계들을 구분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같이 유기체로서의 소그룹은 그 구성원들과 함께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다.

이제까지 소그룹 안에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지로 행동하는 ‘자발성’, 구성원들 개개인이 갖는 독특성이 하나의 소그룹 안에서 어우러져있는 ‘다양성’, 구성원들이 서로 깊은 신뢰 관계 가운데 의지가 되는 ‘상호의존성’, 그리고 모든 소그룹적 행위에 기반이 되는 ‘신뢰’ 등의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사랑, 돌봄, 회복과 치유, 그리고 성장과 같은 특성들이 있음을 보았다. 이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소그룹을 신학적 견지에서 살펴보겠다.

## 제 2 절 소그룹 신학 이해

소그룹이 가진 신학적인 의미는 다른 어떤 형태의 사역들보다도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가진 교회 사역의 본질이며 핵심이라는데 있다. 창조기사로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품성을 따라 만드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었다.<sup>122)</sup>

창조기사를 통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긴밀한 관계의 공동체가 에덴 동산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이 소그룹의 원형에서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목적을 알 수 있다. 태초의 공동체로서 소그룹 안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친밀하게 대면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이고 허물없는 교제의 관계를 형성했다.<sup>123)</sup>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다(창 1:27-28).<sup>124)</sup>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임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책임있는 통치권의 위임이 남자와 여자에게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형성하고 사역하는 공동체의 원리를 발견한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창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그룹은 인간의 본질을 반영하며,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관계의 단절을 맛보아야 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소유했던 소그룹의 원형에서의 친밀한 관계는 깨어지고 인간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sup>125)</sup> 이렇게 죄로 인해 시작된 관계의 단절과 파괴된 소그룹은 여러 가지 죄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벨 살해사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후 바로 인간 상호간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인간은 친밀한 관계 속에 책임과 신뢰, 사랑과 관용으로 소그룹을 세우기보다 분열과 분쟁, 시기와 질투를 일삼았다. 소그룹의 깨어진 모습은 노아의 가족사에서도 발견된다(창 9:20-27).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신의 잘못과 그에 대한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어 주지 않고 드러낸 함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함의 자녀들을 저주한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과 사랑의 모습이 노아의 가족 공동체, 소그룹 속에 보이지

122)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17.

123) Ibid., 18.

124)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125)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44.

않는다. 건강한 소그룹, 온전한 가족 공동체 속에 있어야 할 다른 구성원에 대한 책임 의식의 부재를 드러낸 사건이 또 하나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아브라함의 이야기이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명목아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추한 죄악을 저지른다(창 20:1-13).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단절되고 부서진 관계들로 인해 아파하는 인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계획하신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있다. 당신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태초에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가졌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계획인 것이다. 소그룹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시화되는 구원의 장소이다.<sup>126)</sup>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 소그룹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아브라함의 가족 소그룹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셨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 인간의 소그룹 안에는 참된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시기과 질투, 분쟁과 살의가 가득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과 단절된 인간, 파괴된 소그룹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살리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가시화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인간에게 당신과의 관계의 회복, 소그룹의 회복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진정한 소그룹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며 공생애 기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열두 제자에게 집중하셨다. 예수님은 열둘로 구성된 그의 소그룹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다(막 3:13-14).<sup>127)</sup>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때 세상에 있는 다른 이들도 주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7:20-23).<sup>128)</sup> 제자들의 소그룹은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

126) Jimmy Long, *소그룹 리더 핸드북*, 28.

127)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막 3:13-14)

로, 밖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안으로는 서로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선택되었던 것이다.<sup>129)</sup> 오늘 의 소그룹들도 제자 소그룹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모임이다. 그러면 소그룹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일까?

지미 롱(Jimmy Long)은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sup>130)</sup> 첫째, 하나님께서는 소그룹을 통한 재창조를 계획하셨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이 왜곡되고 파괴되었다. 세상은 불의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공동체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으며, 이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셨다. 이사야서<sup>131)</sup>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쁨의 공동체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소그룹을 통한 회복을 기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에 합한 모습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태초의 공동체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상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 셋째,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그룹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지금은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후에는 커져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공동체를 기대하셨다(엡 4:15-16).<sup>132)</sup>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는 각 지체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자라나는 공동

128)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 17:20-23)

129) Jimmy Long, 소그룹 리더핸드북, 29-30.

130) Ibid., 30-35.

131)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라” (이사야 60:20-22)

132)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 4:15-16)

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이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소그룹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를 원하신다.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소그룹은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공동체이다. 기독교 소그룹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시적 영역이다.<sup>133)</sup>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그의 소그룹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다(마 28:19-20).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 예수님께서 그의 소그룹에게 지상에서의 사역 마지막 순간에 명하신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소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요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면 소그룹에 대한 이 시대와 한국교회들의 요구는 어떠한 것일까? 이제 소그룹이 필요한 시대 상황과 소그룹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의 해결에 있어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들을 살펴보겠다.

### 제 3 절 소그룹을 향한 시대적, 교회적 요청

제 2 절에서는 소그룹이 어떠한 모임이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신학적 견지에서 소그룹을 바라보았다. 이제 한국교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분석하고, 공동체성의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 1. 시대적 상황

한국 사회는 산업화를 겪은 이후 전에 없었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의식,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 급격한 사회 변동은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133) Gareth Weldon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 An Integrational Approach*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4), 124.



전통적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도덕적 가치가 확립되지 못하면서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가 한국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만연되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복지와 평화보다 개인적, 집단적 이익과 안일을 우선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up>134)</sup> 이러한 이기주의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책임의식을 결여한 과소비 성향 등으로 표출되어서 경제적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한국 가정들은 핵가족화 되었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지나친 관심 속에 자라난 이들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의존적이기 쉬워졌으며 개인주의적 행동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커졌다.<sup>135)</sup> 이러한 이중적인 면으로 인해 많은 현대인들이 어디에서도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회의식과 연대감이 쇠퇴함에 따라서 신앙의 부재와 영적인 약화가 더해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새 문화' 혹은 '반문화' 현상이 생겨났으며, 결국 현대 사회는 공동체 의식과 인간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분산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분산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인격과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sup>136)</sup>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채 개인주의 성향만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은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소비 지향적 형태 속에서 이러한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들과 특징적인 형태들이 변화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인간 행동에 대한 도덕적 해석이 임의적 해석, 상황 윤리로 대체되었다. 노동과 생산을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적인 가치는 향락과 소비 지향적 가치로 변했다.<sup>137)</sup> 소비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행위이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잘못 행해지는 소비주의는 불균형의 강박 관념

134) 이숙종,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101.

135) Jimmy Long, *소그룹 리더핸드북*, 16.

136) 이숙종,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55.

137) Ibid., 61-62.

을 낳게 되고 공동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소비주의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단순한 소비의 행태에 있지 않다. 그 안에 담긴 '책임을 무시하는 권리'의 행사가 문제를 일으킨다.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는 개인의 권리 추구가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짓누른다.<sup>138)</sup> 이러한 잘못된 소비주의는 빈부의 격차를 가시화하고 인간의 존엄성보다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비인간화를 조장한다.

개인주의와 잘못된 소비주의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몇가지 요인들이 있다. 한국이 다민족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각된 노인문제 그리고 산업화, 관료화로 인해 야기된 비인간화와 노사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국제결혼, 유학, 여행, 그리고 취업 등으로 인해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가 2006년에는 50여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상사원, 외교관, 관광객 등을 포함한 장, 단기 체류외국인은 8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2005년도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14퍼센트를 차지했으며, 2020년경에는 30퍼센트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이민자 수의 증가와 한국사회의 다민족사회로의 진행은 21세기 세계화와 더불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sup>139)</sup>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한민족에 대한 고집과 폐쇄성을 지니고 있다. 한민족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와의 '다름'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많은 국내 체류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혼혈인들은 직, 간접적인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소외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노인들도 빼놓을 수 없다. 이미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7퍼센트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퍼센트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는데, 한국의 노인 숫자는 2000년에 333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7.1퍼센트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더욱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0퍼센트, 2020년에는 13.2퍼센트, 2030년에는 19.3퍼센트가 되고, 2022년경에는 14퍼센트를 넘어서서 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sup>140)</sup>

138) Randy Frazee, *21세기 교회 연구 : 공동체*, 194.

139) 박찬식, 이우성, *2020프로젝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31-32.

노인은 역할 상실로 인한 심리적 좌절감을 경험한다. 특히 퇴직을 하고나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던 자신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주변부로 내몰리는 느낌을 갖게 되고 자녀들의 성장과 출가, 친구와 배우자의 사별을 경험하면서 깊은 고독과 소외감을 느낀다. 또한, 조기은퇴, 미흡한 연금제도, 자녀양육비의 과다지출 등으로 인해 노후대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늙어지면서 건강도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고 집안에서의 역할도 더욱 약화된다.<sup>141)</sup> 이제 소수가 아닌 다수의 노인이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 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러한 노인 문제는 전 사회적인 대안을 필요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국인이나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현대 사회에는 노동의 분업과 경제, 산업 구조의 전문화의 영향으로 관료제도가 형성되었다. 다원화된 사회 조직의 기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료제도는 획일적인 계급제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관료제도가 전문화된 사회와 노동의 분업으로 발달된 다양한 사회 분야들을 통제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제도의 특성상 경직된 종속 관계와 사회기능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비인간화와 인간성의 상실과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관료제도에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권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들의 독점적 권한이 되어버려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sup>142)</sup> 이렇게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능률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존엄성을 평가 절하 받으며 소외와 차별로 인한 아픔을 견디며 살아왔다. 그러면 산업화 시대를 지나 기술종교(the religion of technology)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학기술이 우상처럼 숭배되는 현재 우리의 시대는 어떠한가?

이 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수많은 기계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겨져서 진정한 자유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

14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0), 이원규, *한국 사회 문제와 교회 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03-104.

141) 이원규, *한국 사회 문제와 교회 공동체*, 108-111.

142) 이숙종,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58-59.

간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질의 풍요로움은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사회가 과학기술이 발달해 감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 가치로 두게 되고, 이에 따라 부의 집중현상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진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은 커져가고 있다.<sup>143)</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과학문명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공학), ET(에너지공학) 등으로 발전해 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주어진 과학문명은 인간복지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과학문명으로 인해 인간영혼은 황폐해지고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이 현대문명의 이기 속에서 죽어가는 문명의 '자폐아'로 만들어 갈 것이다.<sup>144)</sup>

과학 기술의 발달, 합리주의 사고, 정치와 경제의 발달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화 시켰으며, 이로 인해 사회전반의 공동체가 무너졌다. 그리고 인구 이동을 동반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질화되었으며, 사회 결속력도 점차 작아졌다. 사회 구성원들은 조직 구조의 거대화과 관료주의화로 인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대부분 비인격적인 관계에 머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성과 인격의 상호성은 약해지고 소외와 고독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sup>145)</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소외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전 문화, 다양화, 이질화되는 빠른 변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 목회자가 홀로 효과적으로 반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유사한 경험과 삶의 정황에 있는 코어그룹이 서로를 격려, 지지, 지원해주는 것이 절실하다. 많은 이들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의미 있고 정기적인 관계의 혜택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현시대는 관계를 갈망하는 시대이다.<sup>146)</sup>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

143) 박찬식, 이우성, *2020프로젝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152-153.

144) Ibid., 7.

145)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 2007), 266-267.

146) Andy Stanley &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24.

은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개인의 가치가 인정되는 진실된 관계이다. 진정한 공동체는 이러한 관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현 시대 속에서는 그러한 진실된 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한국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한다. 소외와 차별로 자존감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실한 관계를 제공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진정한 관계를 세상에 올바르게 제시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이러한 물음들을 풀어가 보겠다.

## 2.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교회

앞에서 살펴 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차적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적 규범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타락한 영적, 도덕적 문제들로 인해 인간소외와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영적, 도덕적 문제를 담당해야하는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sup>147)</sup>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감당해낼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보이는 세상에 참된 공동체란 이런 곳이라고 당당히 우리의 교회를 내보이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참된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이승구는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sup>148)</sup> 첫째, 성경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영육 이원론이 한국교회에 고착되었으며 그로인해 성속 이원론적 사고가 성도의 삶 속에 드러난다. 둘째, 개교회주의가 강화되었다. 셋째, 목사직 세습이 교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넷째, 교회 재정의 비합리적

147)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10-11.

148)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 (서울: SFC출판부, 2005), 289-290.

사용과 불투명의 문제이다. 다섯째, 물질과 부에 대한 바르지 못한 견해의 등장이다. 여섯째, 교회 내의 바르지 않은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일곱째, 교회 안에서 특정 집단에게 권력이 편중되어있는 문제이다. 여덟째, 사회 전반과 문화 일반에 대해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갖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한국 무속신앙과 유교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며, 산업화의 영향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도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시키고, 성장 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한국인의 심성을 오랜 시간 지배해 온 것은 한국 무속신앙이었다. 무당종교는 현실성, 의존성, 기복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한국 무교는 의타성, 보수성, 현실성, 오락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무교적 특징들은 한국 교회의 특징적 요소로 흡수되었고 이후 한국 교회의 비판의 요소가 되었다. 무당종교의 특징은 한국 교회가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게 만들었고, 기복적이며 의존적인 성격을 갖게 하였다. 한국 교인들이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갖는 의존성은 한국 토속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생성된 병리현상인 것이다.<sup>149)</sup>

한국교회는 무속신앙에 의한 병리현상에 더하여 유교적 가치에 물들어 있다. 유교는 효(孝)사상을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보고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를 가부장적 위계 구도로 규정한다. 유교는 가족 중심적 세계관을 체계화, 규범화하여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만들었고, 이러한 생각을 사회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내 가족과 같은 집단을 형성하여 폐쇄적 가족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인 위계 문화, 서열 문화, 학벌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교의 폐쇄적 가족주의는 권위주의적 수직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 반공동체적 패거리 문화를 만들었다. 유교가 만들어낸 폐쇄적 공동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그 악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 것도 바로 폐쇄적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배타적 이익 집단이다.<sup>150)</sup> 한국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도 '유교적인' 한국인들이기에

149)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54-55.

150)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123, 149-151.

다른 교회나 교단들에 대해 폐쇄적인 모습과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까지도 보인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웃 교회, 교단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연합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한국 교회는 1960-1970년대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국가 근대화 및 산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1,000만 성도라는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풍요해진 경제와 다양화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교회의 성장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한국교회는 다원화되고 물질주의화된 사회에 대해 사회적, 영적 지도력 및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sup>151)</sup> 그러면서 교회 내 많은 의식있는 기독교인들은 한동안 성장주의에 정신이 팔려 잊어버리고 있었던 교회의 중요한 요소와 성장주의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중심, 개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개교회주의는 교회운영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한국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교회 내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교회주의는 독립성과 성장을 위한 경쟁성을 지니고 있기에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교회중심의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리는 목적전치현상을 가져온다. 그래서 주로 개교회의 예산 확대와 시설 확장에 관심을 집중하고 복음선포, 성도들을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건설, 그리고 교회 간의 연합과 단결에 무관심하게 만든다.<sup>152)</sup>

개교회주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심을 교회 내부에 한정시키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킨다. 이로써 세상에 건강한 도덕과 성경적 가치관을 제공해야하는 교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도덕적 설교는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을 가지는 추상적인 원론에 머무르게 된다. 개교회주의는 목회자와 성도가 가진 개인주의가 교회로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교회들, 교단,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교회들의 연합이 힘들어 질수록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해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은 약화된다.<sup>153)</sup>

151) 박찬식, 이우성, *2020프로젝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23.

152) 문석호, *21c 한국교회와 공동체운동*, 47-48.

153)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26-27.

현대 사회는 합리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고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생활양식이 개인주의화 되었으며 세속 물량주의 가치관에 의해 성공 제일주의가 확대되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적 요소를 강조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회 변화에 편승하여 번영의 신학을 중심으로 교회성장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개교회 만능주의와 개인 축복의 장으로서의 교회만을 강조하였다.<sup>154)</sup> 교회 성장만을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신학은 결과만 좋으면 옳은 것이라는 실용주의적인 결과 중심의 접근법을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파시켰다.<sup>155)</sup>

오늘날 교회는 자본주의적 가치관 - 물량주의, 성장 제일주의, 무한 경쟁주의, 상업주의 - 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수적인 성장을 이루면,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기독교적이지 못한 부분이 드러날 지라도 면죄부를 받는다.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자본주의적 가치들은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많다.<sup>156)</sup>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한 가장 큰 악영향 가운데 하나가 물량주의이다. 물량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신도 수, 교회 건물의 크기, 연간 예산의 크기 등과 같은 양적인 것을 기준 삼아서 목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 물량주의는 복음의 확장보다 교회 조직의 확장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한국교회에 도덕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sup>157)</sup> 교회에서도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내부적으로도 도덕성의 문제로 공동체성이 파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성장을 나타내는 숫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섬기기보다 숫적인 성장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보다 자신들의 개인 왕국을 세우는 덩에 겹려 더 큰 왕국에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154) 문석호, 21c 한국교회와 공동체운동, 13-14.

155) Kenneth O. Gangel, *최강의 팀워크를 만드는 전략노트*, 229.

156) 이문장, "왜 한국에서의 기독교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나," *목회와 신학*, 2004년 10월호, 62-63.

157)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22-23.



이 아닌 '일'에만 열중하는 잘못을 범한다.<sup>158)</sup>

물론 어떤 개인이나 그룹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실질적인 사역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역에 성공한 후에는 성취감을 느끼며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성취감과 책임감이 가중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사역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사역 자체를 비전삼아 일을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역을 위한 사역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대신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봉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대신하게 된다.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역과 그 사역 가운데 허락되는 기쁨과 사랑이 나와는 상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 버리게 된다.<sup>159)</sup> 목적전치 현상이 교회에도 사역에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 목적전치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속 신앙으로부터 기인된 기복 신앙, 유교로 인한 폐쇄적 가족주의와 개교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고로 인한 성장제일주의이다.

교회에 시장경제의 논리가 들어왔다. 시장경제에서는 잠재적인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그것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고, 구매욕을 불러일으켜서 그 상품을 팔아서 이득을 남겨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도 이와 같은 방법과 논리를 적용해서 잠재적인 신자들을 불러모았다. 그들의 욕구를 물어보고 그 욕구를 교회에서 충족시켜줄 테니 교회로 나오라고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겠다는 열정이 앞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우기보다는 보다 많은 개종자를 얻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개종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마 28:18-20). 오늘날 교회는 가시적인 필요 욕구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sup>160)</sup>

많은 한국 교인들이 대형 교회가 가지는 익명성(匿名性)때문에 소형 교회보다는

158) Kenneth O. Gangel, *최강의 팀워크를 만드는 전략노트*, 21.

159)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 (서울: 평단문화사, 2007), 220-221.

160) E. Glenn Wagner,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73-75.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 많은 교인들이 소형 교회가 보이는 교인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교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책임도 회피하려는 마음에서 대형 교회를 찾는 것이다. 대형 교회의 익명성은 개인으로서의 교인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만들고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책임성을 결여시킨다. 대형교회가 가지는 익명성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했지만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바라는 교회의 선교, 봉사적 기능이 작아지게 되었다. 지난 몇십년 동안 한국 교회는 개교회의 성장에 온 힘을 기울여 큰 성장을 이루어 냈다. 반면, 사회적 책임에 충분한 힘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불신자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sup>161)</sup>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화와 도덕적 기준을 선도해 나갔던 시대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불신자들은 교회가 선을 행한다고 하여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교회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변혁하지 못하고 그 흐름에 편승하여 교회의 본연의 모습,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의 본질에 대한 위기이다. 이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섬김과 나눔의 가치들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사회의 흐름 속에 섞여서 흘러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경험하였던 교회의 공동체적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한국 교회는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내부 빈곤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보다는 교인수와 재정을 늘리고 건물을 크게 짓는 데에 열심을 낸 결과, 공동체로서의 교회관과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여서 교회의 공동체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sup>162)</sup> 세상은 개인주의, 물질만능의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고 있다.

오늘날 시대가 절실히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한 교회이다(히 10:24-25).<sup>163)</sup> 교회에서 믿음과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삶을 체험한 성도들이 물질

161)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48-49.

162)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260.

16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10:24-25)

만능의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가야 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이 되어주어야 한다. 필자는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회복됨에 있어서 소그룹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소그룹이 갖는 이러한 장점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 3.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의 유용성

한국 교회에 만연된 유교적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비틀어진 신앙, 성경적이지 못한 기복신앙을 바로잡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유기체적인 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공동체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들이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이할 만한 움직임이 있다.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평가되는 교회들 안에 10-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교제와 말씀을 나누고 구제와 선교를 감당하는 소그룹 모임들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오늘날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함에 있어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현대 사회구조에서 갖는 소그룹의 실제적인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sup>164)</sup> 첫째, 유연성이 있다. 장소, 시간, 횟수, 규모에 융통성이 있다. 둘째, 유동성이 있다. 가정 뿐 아니라 사무실 등 사람이 있는 곳 어디서나 가능하다. 셋째, 포괄적이다. 사회신분,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넷째, 인격적이다. 대화를 통해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분할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여섯째, 전도의 수단이 된다. 일곱 번째, 최소한의 전문적 지도력만 있으면 그룹을 이끌 수 있다. 여덟 번째, 제도화된 교회에서도 적용가능하다.

스나이더의 이와같은 주장은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소외와 고립, 차별과 갈등의 시대 상황과 자본주의적 가치에 물들어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164)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168-169.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그룹이 얼마나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그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소그룹이 이러한 장점들을 갖게 되는 것일까?

정웅섭은 소그룹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 다음의 다섯 가지를 이야기 한다.<sup>165)</sup> 첫째, 심리적 해방의 보장이 일어난다. 지나치게 성급하게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면 소그룹 상호간의 친밀감이 육성되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단절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개방과 타자수용의 노력, 공동탐구, 정신적 안정감의 증진 등이 필요하다. 둘째, 과제의 제공과 분담이 행해진다. 소그룹의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목표와 활동에 대한 의욕을 지니게 한다. 이를 위해 과제의 부담과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그룹과의 협력이 활발하다. 소그룹이 자체의 과제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단계에 이르면 다른 그룹이나 보다 큰 그룹과 밀접한 교섭관계를 가지려는 경향이 생긴다. 즉 소그룹 자체를 보다 깊이 특성지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독자적 위치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어, 다른 그룹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소그룹의 협력성과 개방성은 자체 활성화에 있어서도 활력소로 작용한다. 넷째, 소그룹 활동은 공동사고와 공동행위에 의한 공동작업이다. 이것은 공동작업을 통해 개체 구성원들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속한 다른 구성원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것은 상대방과의 진지한 대화를 추구하게하여 참다운 협동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그룹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다섯째, 동일한 가치관으로의 통합이 일어난다. 구성원들이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얼마만큼 통합되어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소그룹의 발달 성향을 알 수 있다.

소그룹은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과 유교의 쏜 뿌리를 버리고 성경적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그룹에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 절에서 본바와 같이 소그룹이 공동체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그룹이 갖는 관계적 특성은 다른 요소들보다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클라이드 리드(Clyde Reid)는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깊은 인간관계에 대한 굶주

165) 정웅섭, *현대 기독교 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346-349.

림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소그룹에 관심을 가진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져다줄 관계를 필요로 하며, 소그룹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과 용납의 인간관계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166)</sup>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이 부각되어가고 있다. 자신을 드러내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날 때 인간 본연의 갈망, 인격적 사쁨에 대한 갈망을 충족할 수 있고 인격도 성장할 수 있다. 구성원 간에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안정감을 갖게 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창조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개선되고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게 된다.<sup>167)</sup>

폴 스티븐스(R. P. Stevens)는 대형화 되어가는 현대 교회들안에 화려한 예배와 훌륭한 설교는 있지만 성도를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따뜻한 만남과 교제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대면하여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에서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68)</sup> 교회는 교회 안에 인격적인 교제, 깊이 있는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소그룹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자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자신의 자아와 인격이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도록 도와야 한다. 공동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성도들 상호간의 수평적인 관계망 조직으로서의 소그룹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sup>169)</sup> 그러면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 얻어지는 또 다른 유익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교회 안에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소그룹의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공동체 교회는 새신자들의 접근성이 쉬워진다. 어떤 이들은 가정을 통해 교인과 공동체와 연결된 후 교회에 나옴으로써 거부감을 덜 느낄 수 있다. 관계형성을 통해 신앙생활의 유익을 먼저 맛본 후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이다.<sup>170)</sup> 많은 이들이 친분관계를 통해 교

166) Clyde Reid,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쿤란, 1996), 15.

167) Jimmy Long, *소그룹 리더핸드북*, 23.

168) Paul R.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사, 1997), 59.

169)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11.

170) Andy Stanley &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95.

회에 나오고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소그룹 교회가 이러한 친분관계를 만들어주며, 소그룹은 제2의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준비된 양육 제도를 갖춘 소그룹에서 결신한 이들은 더욱 큰 개념의 교회에 포함되어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한다.<sup>171)</sup> 초대교회가 보여준 관계형성과 부흥의 방법이 이와 다르지 않다.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나 패러다임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치와 관용의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는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sup>172)</sup> 교회가 참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서로 깊이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가족 관계를 느낄 수 있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서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제공되어야 한다.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이 갖는 또 하나의 유용성은 소외됨 없는 목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소그룹을 통해서 더욱 많은 이들이 목회적 돌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리더의 중요한 직무중 하나는 예비리더를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가장 적절한 곳,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있는 사람들에게 리더십과 돌봄의 책임을 나눌 수 있다.<sup>173)</sup> 목회자 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목회적 돌봄의 책임을 나누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소그룹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들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베드로전서 4:10)는 말씀을 실천한다. 그들은 사역의 역할과 책임을 “선택된 소수”에서 많은 이들에게 확장시켰다. 각 사람이 소그룹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그들의 은사들을 사용하여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sup>174)</sup>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

171) Joel Comiskey, *셀 그룹 폭발*, 126-127.

172) Kenneth O. Gangel, *최강의 팀워크를 만드는 전략노트*, 230-231.

173) Andy Stanley &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95-96.

174) Joel Comiskey, *셀 그룹 폭발*, 87.

다. 즉, 그 분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소그룹은 그 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전 인격적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기에 좋은 환경이다. 소그룹은 보다 편안하고 친근한 환경 속에서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적합하다. 교회의 소그룹은 그 어떤 형태의 소그룹도 사랑의 돌봄과 양육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된 소그룹, 소외됨 없이 돌봄과 양육의 혜택을 누리는 함께 누리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과 돌봄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소그룹이 가지는 장점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소외됨 없는 소속감과 지지받고 있음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그룹이 그 구조에 있어서 구성원 가운데 누구도 진정한 사랑의 인격적 교감을 나누는데 소외되지 않을 정도의 '소'그룹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sup>175)</sup> 소그룹 사역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들과 삶을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살핌을 받는다.<sup>176)</sup> 소그룹 속에서 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소외됨이 없는 돌봄의 사역을 가능하게 만드는 소그룹 사역이 규모가 큰 교회에서도 잘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그렇다.

물론,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 상호 의존적 특성이 더 잘 나타나고 규모가 커질수록 익명성이 높아지고 공동체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동체적 교회는 규모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서 만들 수 있다.<sup>177)</sup>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작은 교회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들도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다.

그 예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90년 말에 교인수가 65만을 넘어섰고,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 5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규모는 계속 증가한 반면, 인도양육체제는 더욱 소그룹화되고 개인적이 되어갔다. 교회는 구역이라고 명칭하는 소그룹을 10명에서 20명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조직하고, 55,000명 가량의 구역장들이

175) John Mallison, *생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24.

176) Andy Stanley &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교회*, 96.

177)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190.

이들을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교회를 소그룹 단위로 조직하여 65만의 성도들이 세심한 목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sup>178)</sup> 국내외의 건강하게 성장하는 중·대형교회들도 그 명칭은 다를지라도 교회를 소그룹화하여 효과적으로 돌봄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소그룹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성은 '함께 함'을 전제하는 것이며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때 보다 많은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많은 교회들이 사역의 조건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자원들의 배치를 결정하고 투입한다. 때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충분한 교육과 지원, 격려와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자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치에 서있다는 즐거움보다 일에 대한 의무감에 시달리며 힘들어하기도 한다.<sup>179)</sup> 직장이나 학교, 세상의 다른 조직들에서 느끼던 어려움들을 교회 안에서서도 똑같이 갖게 되는 것이다.

웨버(George Weber)와 앤더슨(Leith Anderson)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에서 소그룹의 필요성을 찾는다. 웨버는 현대 도시인들의 생활에 비추어 볼 때 교회의 기본구조는 소그룹이 되어야 하며, 교회는 공중예배와 소그룹 활동이라는 두가지 초점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sup>180)</sup> 앤더슨은 사회적, 구조적 변화의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소그룹은 교제와 공통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장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81)</sup>

미래학자들의 인문주의적 과학주의적 방법들은 미래에 대한 많은 예측을 제공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내놓지는 못한다. 미래에 대한 해답은 공동체 교회가 제공해야 하며 그 해답의 근거는 성경적이어야 한다.<sup>182)</sup>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을 가르치셨다. 세상에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기 원하는 자가 얻을 수 없는 생명과 자유를 말씀하셨다. 그리

178)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 2000), 34-35.

179) Kenneth O. Gangel, *최강의 팀워크를 만드는 전략노트*, 287.

180)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61-165.

181) Leith Anderson, *21세기를 위한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솔로몬, 1997), 14.

182) 박찬식, 이우성, *2020프로젝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10.



고 천국은 누룩이 온 떡에 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퍼질 것이라고 가르치셨고(마 13:33),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복음은 그의 충실한 제자들을 통해 풍요와 문명의 이기 속에 있던 로마제국에서 누룩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왔다. 공동체 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평안을 찾기 위해 세상의 재물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진정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과 함께 누리는 사랑과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해야한다.<sup>183)</sup> 이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회, 문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복음적이고 영성적인 교회가 되어야한다. 비전을 분명히 하고 팀 리더십을 구축하여 평신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해야 하고 가정과 더불어 사역해야한다.<sup>184)</sup>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 진실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 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곳이며, 공동체가 가진 특성들 -자발성, 다양성, 상호의존성, 신뢰- 과 더불어 사랑, 돌봄, 회복과 치유, 성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소그룹이 수없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기 사로부터 초대교회에 이르도록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용하신 구원의 방법이였다. 하나님께서는 소그룹을 통해 파괴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다시금 화목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기대를 갖고 계신다.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극단적 개인주의와 책임이 사라진 소비주의적 성향을 띄었으며, 이것은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과거에 비해 풍요해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자존감을 상실하고 소외와 고독 속에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하는 교회마저도 무속신앙과 유교의 영향아래 기복신앙과 폐쇄적 가족주의에 젖어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자

183) Ibid., 132-133.

184)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26.

본주의적 가치와 개인주의의 영향아래 양적 성장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상황과 한국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다. 소그룹은 시대와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관계를 제공하며, 소외됨 없는 목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제4장에서는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잘 알려진 풍성한 교회와 화평교회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 제 4 장

###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 사례연구

지금까지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여러 신학자들의 소그룹에 대한 정의와 소그룹이 갖는 특징, 그리고 신학적인 견지에서 소그룹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 시대적 상황과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 속에서 소그룹의 필요성을 찾았으며, 소그룹 그 자체 속에 공동체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에 관계를 갈망하는 현대인들과 소외됨이 없는 목양이 요구되는 한국교회에 소그룹 사역이 절실함을 알게 되었다. 이제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 제 1 절 풍성한교회

NCD 국제본부 총재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6대주에 산재해 있는 1,000여 교회를 대상으로 각 교회마다 30명에게 설문 조사를 행하고, 420만 개나 되는 응답을 분석하여 자연적 교회성장의 원리를 추출해 냈다.<sup>185)</sup> 풍성한교회는 크리스티안 슈바르츠가 말하는 자연적 교회성장의 원리들을 목회현장에 실행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으며, 슈바르츠는 풍성한교회에 대해 자연적 교회성장의 모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sup>186)</sup> 이제 한국적 소그룹 양육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진 풍성한교회에 대해 살펴보겠다.

185)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외 3인 공역, (서울: NCD, 2000), 18-19.

186) 김성곤, *다시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NCD, 2007), 4.

## 1. 교회연혁과 NCD와의 만남

풍성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곤 목사는 모태 신앙인이다. 20대까지 신앙의 열정이 약한 상태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30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으로 힘들어하다가 제자선교회에 들어가 5년 동안 훈련을 받고 뜨거운 영성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이 경험은 김성곤 목사의 목회관과 D12 양육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sup>187)</sup>

풍성한 교회는 1994년 5월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에서 김성곤 목사와 장년 20여명으로 시작되었다. 김성곤 목사는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목회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해오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두 날개로 날아 오르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다. 풍성한교회는 NCD에서 실행하는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건강한 교회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평소 NCD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던 김성곤 목사는 199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자연적 교회성장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NCD의 창립자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가 폭넓은 조사 연구를 통해 알게 된 8가지 핵심적인 원리들이 교회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이 원리와 방법들이 자신의 목회철학과 흡사함을 알게 되었다. 자연적 교회성장의 원리를 사역 전반에 적용한 이후 풍성한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풍성한교회는 NCD를 통해 처음 교회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을 때에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78점, 전인적인 소그룹 90점, 필요 중심적 전도 105점, 영감있는 예배 86점, 열정적 영성 97점, 기능적 조직 99점, 은사 중심적 사역 97점, 사랑의 관계 99점 등으로 평균 93점을 받았다.<sup>188)</sup> 그리고 2차 컨설팅에서는 평균 99점, 3차 컨설팅에서는 평균 107점을 받았다. 풍성한교회는 1,2차 컨설팅 이후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온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에 집중하여 3차 컨설팅에서는 103점으로 향상 되었으며 질적으로 양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sup>189)</sup> 풍성한교회의 사역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요구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셀교회 컨퍼런스’와 6단계 집

187) 박준형,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목회와 신학*, 2007년 7월호, 56-57.

188)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22-24.

189) Ibid., 33.

중훈련이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다.

## 2. 교회의 비전과 8대 목표

NCD 세미나 참석후, 김성곤 목사는 자연적 교회성장 원리의 8가지 질적 특성과 생명체적 원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원했다. 그래서 사명 선언문을 생명체적 원리를 적용하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2천2만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로 바꾸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6대 목표를 필요 중심적 전도, 영감이 넘치는 예배, 하나 되는 교제, 전인적인 셀그룹, 열정적인 영성, 2만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은사 중심적 사역, 세계비전 2천 선교라는 8대 목표로 세분화 시켰다. 그리고 8대목표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질적인 목표를 세웠다.<sup>190)</sup>

첫 번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의 발견, 훈련, 그리고 세움에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각 분야에 전문사역자를 세워 위임하고 협력해 나간다. 두 번째, 전인적 소그룹을 이루기 위해서 소그룹의 열매는 새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소그룹임을 바로 인식하고, 소그룹들이 열매를 맺고 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세 번째, 필요 중심적 전도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에 은사가 있는 성도들을 발굴하고 그들로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여 지역 전도를 행하고, 오픈 셀인 열린 모임을 전 지역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네 번째, 영감있는 예배를 위해 예배국의 모든 이들은 토요일 저녁 리허설과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다양한 연령층을 어우르는데 힘쓴다. 다섯 번째, 열정적 영성을 위하여 매달 한 주간씩 전 성도가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 기도에 힘쓰고, 증보기도 사역을 더욱 활성화하며 전 성도가 1년에 구약 일독, 신약 이독을 하도록 한다. 여섯 번째, 기능적 조직을 위하여 8가지 질적 특성을 8대 목표에 연결시켜 국을 편성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 밑에 팀을 둔다. 그리고 각 팀과 국의 활동의 평가를 위해 매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각 국장과 담임목사로 구성된 비전 회의를 매달 시행하여서 국 활동을 상호 보완하고 조정해 나간다.

190)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25-27.

일곱 번째, 은사 중심적 사역을 위하여 은사 발견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출석 교인 90퍼센트 이상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덟 번째, 사랑 관계의 강화를 위해서 소그룹 안에서 예수 가족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3. 풍성한교회의 특징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지체된 성도들이 몸된 교회의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하며, 소그룹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술한바 있다. 풍성한교회는 이러한 유기체적 공동체로서의 모습과 평신도의 자발적 헌신이 돋보이는 교회이다. 유교적 가치관과 기복신앙 그리고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성장제일주의에 물들어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자대학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인 관계적 특성을 활용하여 전도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

풍성한 교회의 특징은 이 교회의 비전, 사명 선언문, 그리고 8대 목표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풍성한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풍성한교회는 예배와 소그룹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이다. 이러한 사실은 풍성한 교회의 비전인 두 날개로 날아 오르는 교회에서 잘 드러난다. 두 날개란 대그룹 예배를 위한 날개와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날개를 뜻하기 때문이다.<sup>191)</sup> 풍성한교회는 예배와 소그룹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이다. D12 양육시스템은 구역 예배와 제자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어우르면서 교회의 사역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풍성한교회는 3차 컨설팅에서 영감있는 예배 항목에서 103점을 기록했다. NCD의 컨설팅에서 65점 이상만 되면 좋은 교회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놀라운 점수임에 분

191)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24.

명하다. 풍성한교회의 예배는 셀교회의 예배 형식을 수용하고 있으며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린다.<sup>192)</sup>

D12 다이아몬드 양육시스템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져서 소그룹 조직만을 풍성한교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풍성한교회는 예배와 소그룹, 교제와 전도 등 건강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골고루 있으며 사도적 교회가 행해야 하는 책임들이 기쁨으로 행해지고 있기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둘 째, 풍성한교회는 평신도의 헌신이 눈에 띄는 교회이다. 김성곤 목사는 일찍이 제자선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평신도 사역자의 자발적인 사역이 갖는 힘에 대해 알게 되었고, 평신도의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양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평신도 양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제1회 컨퍼런스를 개최할 당시, 풍성한교회의 출석인원은 300여 명에 불과했으며, 예배홀의 수용인원은 230여 명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신도들의 헌신이 바탕이 된 컨퍼런스는 해마다 그 규모가 커져서 1997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던 제6회 D12 국제 컨퍼런스에는 전국에서 1만 4000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30개 국에 파송한 200여 명의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함께 참석했다.<sup>193)</sup>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D12 컨퍼런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1,000여 명의 스태프들 덕분이었다. 그들은 모두 풍성한교회의 자원한 성도들이었고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밝고 친절함 모습으로 참가자들을 기쁨으로 섬겼다.<sup>194)</sup>

평신도들의 이러한 헌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김성곤 목사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목양을 해왔습니다. ‘목양 목회’의 패러다임에서 제자를 삼는 ‘제자 비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가치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목양이

192) 박준형,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목회와 신학, 56.

193) Ibid.

194) Ibid., 58.

란 양떼를 돌보는 것으로서 '젖병 목회'를 말합니다. 곧 심방 목회를 말하는 겁니다. ....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자기 어깨 위에 영혼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 비전'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린 양떼를 돌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제자 비전으로 가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195)

풍성한교회의 질적 목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교회는 은사 발견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확인하도록 돕고 그 은사를 기쁨으로 선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다. 이것을 은사 배치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양육반 3주째에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획일화의 문제가 극복되고 다양성을 어우르며 하나되는 공동체적 교회가 가능해 진다.196) 이렇게 평신도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여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적 실정에 맞는 풍성한 교회의 양육시스템의 뒷받침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풍성한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다. 풍성한교회에는 한국적 양육시스템인 D12 다이아몬드 양육시스템이 있다. 풍성한교회는 평신도 지도자 훈련이 잘 이루어진다. 이를 위하여 D12라는 한국 토양에 맞는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D12 양육 시스템은 하나님 말씀의 발견과 영적 성숙을 위한 방법으로 주로 연역적 형태를 취한다. 귀납적 방법은 자세하고 논리적인 면이 있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제공하지만, 연역적 방법은 포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면이 있어서 추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데 유용하다.197)

풍성한교회의 D12 다이아몬드 양육시스템은 전도에서부터 정착, 양육, 훈련, 재생산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각 단계의 목표가 정확하다. D12의 각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198)

1) 전도.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열린모임'을 만들어 관계 전도를 중심으로한 소그룹

195) 2007, 5, 14일 목회와 신학 포럼 중 김성곤 목사와의 질의응답을 편집부가 정리한 내용. "한국적 토양 위에서 재생산," 목회와 신학, 2007년 7월호, 62.

196) Ibid., 65.

197) 박준형,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목회와 신학, 57-58.

198)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62-66.



&lt; 그림 1 &gt; D-12 양육시스템 199)



전도에 힘쓴다. 열린모임은 총 12주로 진행되며 첫째 주에 7명의 태신자를 정하고, 둘째 주에 그들 중에서 꼭 전도하고 싶은 3명을 다시 선정한다. 그 3명을 '베스트'(Best)라고 칭하고 셋째 주부터 6단계 관계 맺기를 시작한다. 베스트와 매주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 그러면 열린모임에 초청하며 복음을 나눈다. 건강한 교회의 전도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닌 생활이다. 다양한 전도의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시도함으로써 불신자들이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한다.

2) 정착. 새신자의 정착은 전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풍성한교회에서는 새가족이 등록하면 섬김이를 배정하고, 섬김이는 매주 주중에 새가족과 만나 식사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새가족 섬김이 사역'인데 섬김이는 3주 동안 새가족들의 교회 정착을 돌보고 새신자는 4주째에 담임 목사와 만나는 새신자반에 참석하여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풍성한교회의 비전에 대해 듣게 된다.

3) 양육. 양육반은 총 12주로 진행되며 세계비전제자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반드시

199) 풍성한 교회 홈페이지 : [www.psh.or.kr](http://www.psh.or.kr)

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개강 수양회로 전인적 치유수양회가 있는데, 이 수양회는 내면의 문제들과 견고한 진을 다뤄 영육간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첫 시간에는 자기소개 자료를 가지고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팀워크를 다진다. 양육반에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등 신앙의 기본을 다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을 익힌다. 시간마다 자신의 삶을 나누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 은사발견 세미나에 참가하여 자신이 맡은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새가족섬김이학교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어서 몇 개월 전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새신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

4) 제자대학 1학기 제자훈련. 양육반을 수료하고 난후, 제자대학 1학기 제자훈련에 입문한다. 제자훈련은 제자로의 부르심을 깨닫고 제자의 삶에 대해 훈련받는 시간이다. 김성곤 목사는 가치 변화를 제자훈련의 목표로 삼는다. 즉,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비전의식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제자훈련은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을 제시한다. 1학기에는 가치 변화를 위한 실제적인 훈련의 장이 되는 열린모임 참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5) 제자대학 2학기 군사훈련. 제자대학 1학기 제자훈련에서 2학기 군사훈련으로 넘어갈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리더 수양회가 있다. 리더 수양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셀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비전 수양회이며, 리더 수양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sup>200)</sup>

군사훈련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자각하는 시간이다. 군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이다. 군사는 부르신 자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부르신 자의 소망이 곧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다. 2학기 과정에서는 군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린모임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6) 제자대학 3학기 재생산훈련. 이 단계는 재생산 사역자로 훈련하는 과정이다. 풍성한교회의 양육과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민족,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제자를 훈련해 내는 것이다.

이와같은 D12 양육시스템은 한국적 셀모델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10-111.

종성한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전도 소그룹의 활성화이다. D12 양육시스템 중에서도 관계 중심의 전도법으로 높은 새신자 정착률을 이끌어내는 전도 소그룹, 열린모임은 종성한교회의 특징적인 면이다.

김성곤 목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재생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본질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군사 훈련, 재생산 훈련을 거치는데, 양육과 훈련을 통해 군사로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제로 전도를 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전도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종성한교회의 D12 안에는 쉽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소그룹인 ‘열린모임’이 있다. 3명이 한 조가 되어 전도하는 소그룹 전도를 통해 성도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신자와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가정으로 초청하여서 전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불신자들이 열린 모임을 통해 먼저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새신자 정착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sup>201)</sup>

열린모임은 기존 성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거부감 없이 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열린’ 모임이다. 열린모임은 한 지역을 거점으로 누룩과 겨자씨 같이 그 지역을 장악해가는 침투하는 전도 방법이다. 종성한교회의 전도소그룹은 직장, 학교, 아파트 단지, 주택가, 산업체 등에 훈련된 제자를 보내 전도를 위한 소그룹 성경공부와 종성한 교제를 통해 불신자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를 만든다. 종성한교회의 등록교인 가운데 70퍼센트 정도가 열린모임을 통해 교회로 인도된 사실을 볼 때 열린모임은 분명 효과적인 전도소그룹임을 알 수 있다. 열린모임은 팀을 구성하여 전도를 하기 때문에 혼자 전도할 때의 두려움이 극복되고 전도를 지속할 수 있다. 전도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성도들도 열린모임을 통해 쉽게 전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전도 소그룹, 열린모임이 갖는 강점이다.

열린모임은 인도자 외에 셀가족과 새가족을 포함한 3-4명이 12주 동안 한 팀이 되어 함께 사역한다. 1주에서부터 4주까지는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5주부터 열린모임에 초청한다.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있는 전도대상자는 5주부터 열린 모임에 초청하지만, 교회에 대해 배타적인 전도대상자에게는 하나님이나 교회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선물, 식사대접, 전도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6단계의 관계

201) “한국적 토양 위에서 재생산,” 목회와 신학, 65.

맺는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 후에 열린 모임에 초청한다. 9주부터는 모두 열린 모임에 초청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눈다. 열린모임 11주 진행 후 12주에 추수행사가 열린다. 추수를 위해 열린모임의 모든 구성원들은 새벽기도와 아침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드라마, 영상, 댄싱 등 다양한 장르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한다.<sup>202)</sup>

종성한교회의 다섯 번째 특징은 종성한교회가 하나의 꿈을 품은 공동체라는 점이다. 1997년 제6차 D12 컨퍼런스의 주제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었다. 그리고 김성곤 목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공동체 교회를 강조하였다.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패러다임, 자신의 충성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sup>203)</sup>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직분자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이 같은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획일적인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유기체적인 특성을 지닌 교회와 그 안의 지체들은 다른 지체의 말과 행동에 자연적으로 감응하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원장인 채이석 또한 전교회적으로 비전이 공유되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이 D12와 종성한교회의 강점이라고 본다. 그는 탑 리더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소그룹 안에서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리더가 상명하복의 지도자가 아닌 섬김의 지도력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앞장서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적 돌봄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sup>204)</sup>

종성한교회는 소그룹이 갖는 특성과 장점들을 목회에 잘 적용하여 교회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성을 더욱 굳건히 다져왔으며, 그에 따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모습으로 성숙해가고 있으며 종성한 전도의 열매도 맺어가고 있다.

## 제 2 절 화평교회

202) 김성곤, “우리 교회 전도를 말한다,” *월간 목회*, 2007년 8월호, 135, 137.

203) “한국적 토양 위에서 재생산,” *목회와 신학*, 63.

204) 채이석,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D12,” *목회와 신학*, 2007년 7월호, 67.

가정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 가고 있는 화평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최상태 목사의 제자훈련 비전으로 인해 기존 교회체제에서 가정교회체제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제 가정교회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킨 화평교회에 대해 살펴보겠다.

## 1. 교회연혁

최상태 목사는 그의 가족과 3명의 형제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는 비전을 품고 1988년 1월 30일, 고양시 원당에 화평교회를 개척하였다. 화평교회를 개척할 당시, 고양시 원당 지역은 인구 5만 정도의 농촌과 유사한 읍 소재지였다. 1년을 지내면서 교인의 절반 이상이 대도시로 이주해 나가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개척한지 5년이 지날 무렵부터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화평교회가 위치한 원당 지역의 인구도 2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고양시는 80만 명이 넘어섰다. 화평교회는 2-3년이 지나면서 안정되고 성장해갔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제자훈련 사역이 더욱 활발해졌고, 1998년 이후부터 제자훈련에 기반을 둔 가정교회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sup>205)</sup> 화평교회는 다른 기존교회보다 비교적 빠른 시간인 3개월 만에 가정교회로 전환하였는데, 최상태 목사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가정교회로 전환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래 지속되어온 제자훈련과 그를 통해 준비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서 찾는다. 그래서 지금도 소그룹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훈련된 사역자임을 말한다.<sup>206)</sup>

화평교회는 새가족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지도자반, 전도폭발반, 기도헌신자 학교, 교사훈련반 등의 훈련을 통해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힘쓰고 있으며, 부부성장반, 부모역할반 등 각 그룹 모임과 가정교회 사역에 집중하여서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9명의 교역자와 160여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1500여명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으며, 2명의 파송선교사와 80여 협력선교지를 두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 예배와 교육 공간이 부족하여 화정지구에 부지를 구입하고 새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sup>207)</sup>

205)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37-38.

206) “나의 셀목회 현장이야기,”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호, 99.

## 2.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교회의 비전

최상태 목사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며 가정교회야말로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고 훈련된 평신도를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화평교회는 새신자의 빠른 교회정착을 위해 제직회를 평일로 옮기고 담임목사가 주일에 새가족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평교회는 교육과 훈련에 힘을 쏟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이며, 이를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단순하면서 실제적인 사역에 힘을 쏟아왔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일찍 정착되어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사역중심, 관계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 각종 회의를 줄이고 단순한 친목모임에 머물던 남녀 전도기관들을 없애는 과감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화평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최상태 목사의 7가지 목회철학 - 공동체(관계)를 중시하는 교회, 성경에 기반을 둔 사역에 힘쓰는 교회, 평신도를 훈련하여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훈련받은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 균형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교회, 주님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내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교회 -을 잘 드러낸다.<sup>207)</sup>

현재 화평교회는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 가는 교회에 대한 큰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좀더 구체적인 비전을 품고 사역을 하고 있다.<sup>208)</sup> 화평교회의 비전은 첫째, 모든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사역자로 세우는 일, 둘째,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 셋째, 고양시에 사는 수 십만 명의 시민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것, 넷째, 세계 각 곳에 수 백 명의 선교사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파송하며 협력하는 것, 다섯째, 건강한 모델 교회로 성장하며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돕는 것, 여섯째, 다음 세대 사역에 주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일곱째, 화평의 가족들이

207) 화평교회 홈페이지: [www.hawpyung21.org](http://www.hawpyung21.org)

208)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53-54.

209) 화평교회 홈페이지: [www.hawpyung21.org](http://www.hawpyung21.org)

함께 배우며 사랑하며 섬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케 경험하는 좋은 영적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3. 화평교회의 특징

기복신앙, 폐쇄적 가족주의, 개교회주의, 그리고 성장제일주의로 인하여 사역을 위한 사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보다 앞서는,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는 목적전치 현상이 일어나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과 제자훈련과 양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한바 있다. 화평교회는 사역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수님의 소그룹 사역의 모습을 따라 제자훈련과 양육에 힘을 쏟으며, 소그룹이 가진 특성인 유연성을 잘 활용하여 풀어지는 교회, 가정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있다.

최상태 목사는 목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목회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목회자이다. 한국교회는 외국에서 들어온 각종 프로그램과 세미나의 홍수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어 왔다. 지금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매달려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 교회에 적용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저마다 강점을 지니고 있기에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교회의 상황을 바르게 분석하지 못하고 무작정 도입하거나 교회 본질에 기초한 뚜렷한 목회철학 없이 세상의 유행을 받아들이듯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것은 교회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상태 목사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사역은 여전히 목회의 본질이며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오늘과 내일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강조한다. 제자훈련은 최고의 목회전략이며 대안이고 성경에 기초한 본질적 사역이다.<sup>210)</sup>

그래서 화평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제자훈련과 양육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화평교회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이다.<sup>211)</sup>

1) 새가족반. 새가족반은 입문과정에 해당하고 5주 과정으로 실시된다. 새신자는

210) 최상태, “성공적인 제자훈련 정착을 위한 9가지 제언,” *교회와 교육*, 2005년 가을호, 60-61.

211)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54-62.

누구나 모두 참여하여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함께 나눈다.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게 하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우도록 돕는다. 2) 양육반. 13주 동안 진행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더욱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교회생활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이루어 균형잡힌 생활을 하도록 교육한다. 3) 제자훈련반. 35주 동안 실시되고 양육반을 마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사람을 세우는 훈련으로서 Ⅰ부는 기초편, Ⅱ부는 교리편, Ⅲ부는 생활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도록 교육한다. 4) 지도자 훈련반. 15주로 구성되며 평신도 사역자로 세움 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제자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으며, 현재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들이 이 과정을 마쳤다. 훈련 내용은 리더십(3주), 소그룹 인도법(3주), 성경개론(3주), 교회론(3주), 인간관계론(2주), 멘토링(1주), 모델링(1주)으로 이루어져있다. 5) 부부성장반. 화평교회 부부를 대상으로 13주 동안 실시되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이다. 성경적인 결혼생활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다. 교육과정에는 자아치유, 관계회복, 영적인 인격성숙, 자녀 교육, 그리고 교육관 등이 포함되고, 생활과제를 많이 내주어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6) 전도폭발훈련반. 전도의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전도자를 세우는 훈련과정이다. 16주를 한 학기로 하며, 훈련생들은 처음 4주 동안 전도현장에 따라가서 복음제시를 하지 않고 훈련자가 전도하는 모습만을 관찰한다. 그리고 5주가 되면서 훈련생은 훈련자와 함께 복음을 제시하고, 후반부에는 훈련생이 전체 내용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제시한다. 7) 증보기도팀. 증보기도자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에 두 시간 이상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모인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증보기도 순으로 진행된다. 때로 개인과 교회 상황에 따라 산기도, 체인기도, 심방기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증보기도가 이어지고 증보기도가 끝난 후에는 대부분 식사와 교제를 나눈다.

이와같은 교육과 훈련은 모두 평신도를 제자로 만들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것이 화평교회를 구별 짓는 두 번째 특징이다.

화평교회는 훈련된 사역자 한 사람이 갖는 영향력이 큰 건물이나 많은 예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을 훈련해서 지도자로 세우는데 목회



의 총력을 기울인다. 훈련된 한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수백, 수천 명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력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리더를 계발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한다.<sup>212)</sup>

최상태 목사는 사람을 세우는 제자사역이 모든 사역의 기초라고 본다. 소그룹 목회의 관건은 훈련된 리더이다. 큰 공동체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과 같이 소그룹에서는 훈련된 리더가 중요하다.<sup>213)</sup> 그래서 그는 70퍼센트이상의 목회 에너지를 셀리더에게 집중한다. 주일 오후에는 가장 (총무)반 모임을 가진다. 이 모임에서는 멘토링, 부모역할, 상담, 인간관계론, 리더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행하며, 한주간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소그룹에서 나눌 성경공부를 한다.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이유는 제자를 세워 훈련시키는 일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상과제이며, 담임목사의 비전이 사역자와 성도들과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sup>214)</sup>

이렇게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는 겸손하게 섬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지도자로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최상태 목사는 성도와 평신도지도자들에게 두터운 신뢰감을 주는 목회자이며 모범적인 지도자 모델이다. 화평교회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큰 문제 없이 가정교회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이 최상태 목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증명한다. 한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오성삼 목사와 공주침례교회를 담임하는 안희묵 목사는 소그룹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된 목회임을 강조한다. 최상태 목사도 이에 대해 동의하며 전통 교회에서 셀목회로 전환하는데 5년 정도가 걸리며 이때 얼마나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sup>215)</sup> 화평교회가 가정교회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이루어낸 것은 지도자로서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최상태 목사의 역할이 주요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화평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화평교회가 흠어지는 교회로서 모범적이라는 것이다. 화평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코이노니아

212) 월간교회성장 2005년 5월호에 기고한 글, 화평교회 홈페이지: [www.hawpyung21.org](http://www.hawpyung21.org)

213) “나의 셀목회 현장이야기,” 목회와 신학, 102.

214) Ibid., 104.

215) Ibid., 101.

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가정교회를 통해 다졌다. 최상태 목사는 목회초기부터 제자 훈련에 힘을 쏟았으며 잘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24명을 가정교회의 '가장'으로 세우고 가정교회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었다. 가장들에게는 제자훈련의 다락방 구조에서 '순장'이 갖는 역할을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목회적 활동이 위임되었다. 가장은 가정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새벽예배에서도 가끔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가장이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가정교회에서 예배, 교제, 선교, 교육, 봉사활동 등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이루어진다. 화평교회의 가정교회들은 7-12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다. 가정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담당영역과 고유사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역에 참여한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는 분가를 대비해 예비 가장을 발굴하고 훈련시킨다. 가장은 매주일 오후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에 예비 가장들을 참석시켜 그들이 가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분가는 예비 가장이 현재의 가정교회의 가장이 되고, 가장은 한 두 명의 가족을 데리고 나가 새로운 가정을 개척한다.<sup>216)</sup>

화평교회는 가정교회로 전환한 이후 많은 변화의 열매들이 있었다. 1) 평신도 사역자들이 변화되고 성숙해졌다. 그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 2) 평신도 사역자들의 성숙과 더불어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몇 명의 교역자들이 감당하던 사역을 많은 수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짊어졌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심방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행하여서 돌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3) 전성도사역화의 길이 열렸다.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 가운데 일하는 이들은 10-20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구경꾼이라고 말하는데 가정교회는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 자신의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평신도가 많아진다. 4)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강화되었다. 5) 전도와 선교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뒀다. 소그룹이 가진 강점 가운데 하나가 전도이다. 이것은 가정교회를 통해 교회에 등록하는 이들이 80-90퍼센트에 이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sup>217)</sup>

화평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이며, 예수님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을 수행하는데 생명을 건 교회이다. 근래에 소그룹 운동이 쇠퇴하

216) 2001, 5, 15, 뉴스앤조이, [www.hawpyung21.org](http://www.hawpyung21.org)

217) "나의 셀목회 현장이야기," *목회와 신학*, 103-104.

는 현상이 보이는 이유는 소그룹을 목회의 본질이 아닌 방법이나 프로그램으로 보기 때문이다.<sup>218)</sup>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12제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나아가 다른 제자를 세워 훈련시킬 것을 명하셨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화평교회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사역하는 교회이며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행하기에 힘쓰는 교회이다.

지금까지 풍성한교회와 화평교회의 사역을 통해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 교회가 성경적이며 건강한 공동체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하늘중앙교회의 사역,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를 분석하여 더욱 건강한 공동체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볼 것이다.

---

218) Ibid., 105.

## 제 5 장

### 하늘중앙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상황

소그룹 중심의 사역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온 품성한교회와 화평교회의 예를 통해 소그룹의 활성화로 공동체 교회의 한 몸된 유기체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하늘중앙교회의 역사, 지역 사회, 교회의 목회적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하늘중앙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할 것이다.

#### 제 1 절 교회 역사와 비전

오늘의 하늘중앙교회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 우선, 교회의 설립과 성장과정, 교회가 품은 비전과 그에 따른 열매들을 살펴볼 것이다.

##### 1. 교회 설립과 성장

하늘중앙교회는 천안 최초의 교회이다. 1905년 노익배씨가 양대리에서 천안으로 이사하여 영성읍 읍내리 12-1번지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하늘중앙교회의 전신인 천안읍교회의 시작이다.

1916년 천안읍교회는 천안중심지에 교회 건물과 목사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지방의 교역자들이 순회하다가 며칠 밤을 묵어갈 수 있도록 교역자 기숙사를 지어서 선교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1922년에는 천안 최초로 유치원을 시작하여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하였으며 어린이들의 불신자 부모들을 전도하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1938년에는 4년제 소학교를 개교하여 유치원에서 소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체계가

를 확립한다. 이렇게 천안읍교회는 일제시대부터 인재양성에 열심을 기울였으며, 일본의 강압적인 신사참배에 불응하여 담임목사가 투옥되기도 했지만 지역의 문화와 교육을 선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냈다. 1940년에는 사직동에 새예배당, 교역자 기숙사, 전도부인 숙소, 그리고 지방사업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여 지역 복음화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천안읍교회는 천안지방의 중심교회로서 지방회와 사경회를 해야하는 교회였기에 1956년에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이 손상된 교회와 기숙사를 증축하였다. 1963년 천안이 천안읍에서 천안시로 승격되면서 천안읍교회는 천안중앙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1968년에는 사직동이 시장거리가 되면서 많은 시장의 상인들이 전도되어 성장하였다. 그래서 2층으로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성전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관을 건축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1987년에는 사직동에서 성황동으로 교회를 이전하였으며, 1996년 유영완 목사의 취임이후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교회를 증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하였다. 유영완 목사 부임이후 하늘중앙교회는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며, 노인무료급식, 사랑의 이동목욕, 불우 가정을 돕기 위한 파랑새 학교, 교도소 재소자들의 교화를 위한 다메섹 선교회 설립과 교정선교,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외국인 근로자 선교, 그리고 무주택자를 위한 헤비타트 운동 등 많은 나눔 운동을 실천해 왔다.

<그림 2> 하늘중앙교회 주변지역도



1996년 유영완 목사의 취임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900명이었던 교인이 97년 1,250명, 98년 1,888명, 99년 2,120명, 2000년 2,195명으로 성장하였다. 교회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필요로 모든 성도들은 신개발지역에 성전부지를 허락하여 주시길 한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백석동에 4,042평의 땅을 허락하셨다. 2001년에는 성황동시대를 마감하고 백석동 새부지에서 500평의 조립식 건물을 예배실로 마련하였다. 2003년 4월에는 넓은 진입로를 위해 1,000평을 더 구입하였고, 또 12월에 추가로 270평을 구입하여 총 부지 5,312평을 마련하였다. 2003년에는 지방사업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여 천안지역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 2004년 천안시청으로부터 새성전 건축허가를 받아, 2005년 7월 10일에 새성전 건축 기공예배를 드렸다.

2006년 천안중앙감리교회의 복지사역인 청소년 그룹홈 '다윗가정'의 집을 삼성(주)에서 2억을 지원받아 60평, 2층규모로 건축하였다. 2006년에는 천안중앙감리교회에서 하늘중앙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지면적 3,689평, 최고높이 30m, 연면적 2,667평의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목자관(교역자숙소)을 건축하였다. 2007년 3월에 성전봉헌예배를 드렸으며, 성전봉헌예배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회로 삼아 화환대신 쌀을 받아 2000kg의 쌀을 받아서 지역사회시설기관에 나누었으며, 북한선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과 천안 YWCA에 성금을 보내고, 태안소망교회의 건축과 교회개척을 위해 선교비를 전달하여 천안지역 장자교회로서의 바른 모범을 보였다.

<그림 3> 하늘중앙교회 평면도



## 2. 교회 비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하늘중앙교회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품었다.

- 가. 천안지역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갈 믿음으로 최고가는 교회, 나눔으로 최대가는 교회
- 나. 세계선교와 민족사회를 이끌 영적 지도자를 만드는 교회문화 사역으로 젊은이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교회
- 다. 복지선교를 통해 소외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

교회 비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중앙교회는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한다.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시화되어 그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사역들을 구체화 시킨다. 지역주민과 제3세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에 노력한다. 또한, 세계선교와 지역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둔다. 특히, 세계 선교에 있어서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하늘중앙교회는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핵심가치를 정하였다.

첫째, 개인에게 건강을,  
 둘째, 가정에 행복을,  
 셋째, 지역사회에는 섬김을,  
 넷째, 나라에는 애국을,  
 다섯째, 세계는 선교를.

교회 비전과 5대 핵심가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늘중앙교회는 나라와 세계를 향한 거룩한 꿈을 품고 이웃에게 열린교회를 지향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이다. 유영완 목사는 일찍이 지역사회 복지선교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품고 선교학과 사회복지학을 따로 전공하고 관련 세미나들을 참석하는 등 복지선교에 대한 전문인으로 준비해왔다. 하늘중앙교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선교의 청사진은 1997년도에 그려져 있었으며, 유영완 목사는 주위의 많은 목회자들과 복지선교에 대한 그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회계획을 나누어 왔으며 그 결과, 하늘중앙교회 뿐만 아니라 천안을 비롯한 대전, 충청지역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의 복지선교에 뜻을 같이하여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중앙교회의 지역사회 복지선교를 통해 아래와 같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다.

### 3. 비전의 열매

유영완 목사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선교는 영혼구원의 결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비전, 리더십, 조직, 인적자원, 자본, 기술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선교를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교회가 재가 복지를 행한다고 해서, 교회가 복지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구원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복지는 전도로 열매 맺어야 한다. 복지 선교를 통해 불신자들의 마음에 다가서고, 재가 복지를 통해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sup>219)</sup>



이러한 목회적 비전과 실행을 통해 하늘중앙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표 1> 각 년도별 교인현황 220)

년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교인수(명)	922	1,250	1,888	2,120	2,195	2,244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교인수(명)	2,281	2,375	3,190	3,693	3,873	4,152

그리고 복지선교를 중심한 하늘중앙교회의 목양은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했다.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통해 실천적인 신앙을 체험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자신의 권리에 앞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겸손히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실천적인 신앙을 체험하고 준비 되어진 성도들을 중간 리더들로 세워 그들의 역량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표 2> 각 년도별 평신도 임원과 교역자 현황 221)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임 원 수	662	707	706	741	757	715	783
교역자수	목 사 4 전도사 4	목 사 4 전도사 6	목 사 5 전도사 7	목 사 5 전도사 8	목 사 5 전도사 9	목 사 6 전도사 9	목 사 9 전도사 15

단위 : 명

또한, 지역사회가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노인, 저소득층 자녀,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하늘중앙교회의

219) 유영완, "지역사회 복지선교를 통한 전도전략," 전도세미나 강의록

220) 하늘중앙교회 2007년도 당회록

221) 하늘중앙교회 2007년도 당회록

복지선교는 천안과 충청지역의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각종 기독교 방송과 신앙월간지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 매체에 까지도 그 사례가 소개될 정도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다.

이렇게 하늘중앙교회는 실천하는 믿음, 섬기는 목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하늘중앙교회가 대형교회로 들어서고 교회 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 공동체 교회로서 유기체성을 지키며 계속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천안지역과 하늘중앙교회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여 앞으로의 목회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하늘중앙교회의 목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사역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다.

## 제 2 절 목회적 상황

교회는 지역사회와 따로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역이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늘중앙교회가 속한 천안지역에 대해 살펴보고 하늘중앙교회의 사역을 분석할 것이다.

### 1. 지역 사회 이해

하늘중앙교회는 충청남도의 동북부에 있는 천안시, 그 가운데에서도 신개발지역인 백석동에 위치해 있다. 천안시는 동으로는 충청북도의 청원군, 진천군과 서로는 아산시와 남으로는 공주시, 연기군과 북으로는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와 접하여 있으며, 면적은 636.25㎢로 충청남도 전체면적 8,598㎢의 7.4퍼센트를 차지하고, 행정구역은 4개읍, 8개면, 행정동 16개동, 법정동 30개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차령산맥의 태조산(424m) 줄기가 천안시 중앙을 가로 질러 동서로 지역이 분리되어 있고, 북쪽은 평택평야에 이르기까지 높이 100m 이하의 구릉성 평지이다.

1931년에 천안면이 천안읍으로 승격했고, 1963년에 환성면 일대를 병합하여 천안시로 승격하였다. 1985년에 농촌지역이었던 천안군과 중심도시 기능을 담당해왔던 천

안시가 통합되어 도농통합시인 천안시를 이루었다.

서울, 대전과 같은 대도시와 1시간 생활권에 있는 교통의 요지로서,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수도권 공업 분산정책에 의한 공업성장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총 1,686개 업체에 90,68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산업과 농공을 위한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1개의 국가단지(외국인전용단지)에 44개 업체, 7개의 지방단지(제1-4산업단지, 천흥산업단지, 마정산업단지, 천안산업기술지방산업단지)에 218개 업체, 4개의 농공단지(백석농공단지, 직산농공단지, 목천농공단지, 동면농공단지)에 127개 업체, 그리고 기타 정밀주조협동화단지에 9개 업체가 있다. 도시의 성장과 비례하여 교육시설도 증가하여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21개교, 대학 3개교, 대학교 10개교, 그리고 대학원 11개교가 있다. (2007년도 기준)

천안은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성장을 해왔으며, 현재 총인구는 545,428명으로 내국인이 535,525명, 외국인이 9,903명이며, 백석동 인구는 41,473명으로 내국인이 40,994명, 외국인이 479명이다.<sup>222)</sup> (2008년 7월 31일 기준)

<표 3> 각 년도별 천안시 인구와 외국인 수<sup>223)</sup>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천안시인구	445,495	462,714	509,744	518,818	530,274	540,742	545,428
외국인 수	4,242	6,213	6,662	6,336	7,870	8,786	9,903

공업단지의 조성, 중소기업들의 이전, 서울지역 대학교들의 분교설립 등으로 타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외국인 수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천안시 인구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도 2002년에는 29,027명으로 6.58퍼센트, 2003년에는 30,650명으로 6.70퍼센트, 2004년에는 33,641명으로 6.69퍼센트, 2005년에는 35,004명으로 6.83퍼센트, 2006년에는 36,842명으로 7.04퍼센트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성장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수와 수용인원이 천안시 전체인구에 비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비록 2006년에 노인복지시설의 수와 수용인원이 눈

222) <http://www.cheonan.go.kr/>

223) 천안시 통계 <http://stat.cheonan.go.kr>

에 띄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증가율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천안시는 제3장 3절에서 살펴본 한국사회가 당면한 노인문제, 인종차별, 노사갈등, 비인간화, 다민족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같은 문제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도시이다.

천안시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의 복지시설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2006년도에 노인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에서의 수용인원이 증가하였지만 더욱 많은 수의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나 지방행정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크게 늘릴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각 년도별 천안시 사회복지시설<sup>224)</sup>

	합 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2002	7	603	3	264	1	57	1	61
2003	11	700	3	270	1	74	5	146
2004	23	988	3	268	1	40	15	445
2005	31	982	7	254	1	30	14	425
2006	16	797	3	236	5	144	2	109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단위: 시설수(개소) 수용인원(명)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2002	-	-	2	221	-	-	
2003	-	-	2	210	-	-	
2004	1	10	2	195	1	30	
2005	4	32	3	205	2	36	
2006	4	97	2	211	-	-	

지역사회의 현실이 이러하기에 하늘중앙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갈 것이다. 그래서 전체 천안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하늘중앙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224) 천안시 통계 <http://stat.cheonan.go.kr>

## 2. 교회 사역 분석과 평가

하늘중앙교회의 사역을 조직과 소그룹, 훈련과 양육, 복지선교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

하늘중앙교회의 전체적인 조직구조는 전형적인 감리교회의 모습을 따른다. 그러나 속회와 교회학교, 그리고 젊은이부의 조직이 더욱 소그룹 중심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늘중앙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그룹은 속회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율적으로 속도원의 가정에서 모여 성경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며 봉사와 선교의 일을 논의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85년 35속, 1989년 48속, 1990년 51속, 1991년 57속, 1992년 60속, 1993년 70속으로 늘어났으며<sup>225)</sup>, 현재 123개의 속회가 모여지고 있다.

교회학교 가운데 영아부와 유치부를 제외한 아동부, 청소년부, 젊은이부가 소그룹으로 편성되어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는 푸초(푸른초장모임)라는 명칭의 소그룹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모여 기도하고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관계전도에 힘쓰고 있다. 젊은이부도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같이 셀이라는 명칭의 소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셀을 3교구로 나누어 1교구는 예배사역팀, 2교구는 대학생, 3교구는 직장인으로 구성하였다. 관계전도 뿐만 아니라 노방전도와 다른 행사들도 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셀의 번식과 지도자 양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구체적인 번식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리더와 부리더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학교는 푸른초장모임이 정착되기전 학년제와 교구제가 혼합되어 진행되었기에 적지않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구제와 푸른초장모임이 정착되어 교사가 자신의 주거지역 주변의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주중에도 효과적인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학교의 푸초사역은 관계전도와 소그룹의 운용의 방법과 같은 부분이 알파코스와 G12 같은 소그룹 목회방식과 유사하다.

하늘중앙교회에는 3개의 평신도기관 - 청장년선교회(41개 지회), 남선교회(6개

225) 김진형, *천안팍 최초의 교회 하늘중앙교회 100년사* (충남 천안시: 기독교대한감리회 하늘중앙교회, 2007), 319.

지회), 그리고 여선교회(28개 지회) -가 있다. 선교를 목표로 연령별, 지역별로 지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모여 회장을 선출하고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치기관이다. 3개의 평신도 기관들은 모두 헌신예배와 각종 세미나를 계획하여 섬기고 있으며, 지역 선교를 위해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있고, 지회별로 선교하는 기관을 정하여 후원하고 있다. 특히, 하늘중앙교회의 가장 큰 평신도 조직인 여선교회는 교회의 모든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역할을 감당한다. 장례가 발생하거나 특별행사가 있을 때 3개의 평신도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된다.

#### 나. 훈련과 양육

하늘중앙교회는 100년의 역사 동안 한결같이 성경을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전체 평신도를 위한 성경공부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속장, 강사 그리고 교사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유영완 담임목사는 1996년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성서대학을 개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말씀양육의 틀을 갖추었고, 1997년 1월부터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60일 성서읽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해 11월부터는 성경쓰기를 실시하여 성경공부를 생활화하도록 지도하였다. 2000년 3월 22일 부터는 크로스웨이 성경연구를 개설하였으며, 2001년 5월 부터는 수요일저녁 기도회를 성경공부 시간으로 삼아 강해를 시작하였고 매주 문제지를 인쇄하여 배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성경공부가 되도록 하였다. 1996년 11월 첫 주부터 매주일 10시에 새신자 양육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새신자 양육부는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줄 바나바 사역을 하였다. 2000년 12월 1일부터는 새신자들의 성경공부반을 별도로 개설하여 새신자에게 맞는 성경공부를 실시하였다. 2001년부터는 평신도 성경연구원을 개설하여 새신자반과 양육반으로 나누어 더욱 체계적인 말씀훈련을 시작하였다. 성경말씀을 통한 교인들의 신앙성숙과 준비된 평신도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신천집사는 기초과정인 새가족반과 확신반을 수료한 이에 한하여 공천할 수 있고, 신천권사는 양육과정인 네비게이토, 크로스웨이, QT 학교 수료자에 한하여 공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sup>226)</sup>

현재 평신도 성경연구원의 과정에는 크로스웨이, 네비게이토, QT학교, 신약개론, 모세오경 성경공부 등이 있으며, 성도와 지역주민의 영적, 가시적 필요를 채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한 마더와이즈, 아버지학교, 수요 어머니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하늘중앙교회는 매년 각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사교육을 실시하는데, 보통 2달 정도 매주 토요일에 실시되는 교사대학은 천안지역의 이웃교회에도 잘 알려져서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 교사대학을 이수한 이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이 발행하는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위해 교단과 이웃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매년 속장과 강사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더불어 속장, 속인도자 임원 야외예배와 세미나, 예비속장 수련회 등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들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서로 사역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협력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러한 훈련과 양육과정을 통해 준비된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 다. 세상 밖으로의 사역

하늘중앙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이유는 복지선교 때문이다. 유영완 목사의 부임 이후 복지선교는 하늘중앙교회가 행하는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복지선교를 통해 지역사회의 하늘중앙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져서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하늘중앙교회에서 실시하는 복지선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사랑의 이동목욕 봉사대. 1999년 3월 27일 부터 시작된 이동목욕 봉사는 청장년 선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정신지체장애인과 중풍, 치매, 노인성 질환 등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목욕봉사를 하고, 이와 더불어 집안수리, 청소, 빨래, 내의 및 생필품과 생활비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이동목욕 봉사는 기독교 계통의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신문(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과 3대 공영방송(MBC, KBS, SBS)에 소개되면서 지역 사회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

226) 김진형, *천안평 최초의 교회 하늘중앙교회 100년사*, 432-437.

이미지를 심는 계기가 된 사역이다.

2) 노인무료급식, 199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권사회를 중심으로 교회식당에서 급식을 하고 가을에는 효도관광을 실시한다.

3) 중앙파랑새학교, 교회주변지역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의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실이다. 방과 후 과제물 및 학습 지도, 저녁식사제공, 기업체 및 기관견학, 자연탐사, 방학중 캠프, 컴퓨터 교육, 공예, 미술, 영어교육, 성경공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청소년 그룹 홈 다윗가정, 부모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며 수용시설이 아니라 작은 가정을 만들어 부모없는 청소년들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담당자가 기관의 직원이 아닌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5) 토요문화 교실, 교회학교가 중심이 되어 이웃에 있는 학생들에게 미술교실, 영어교실, 공예교실, 음악교실 등을 제공한다.

6) 수요일어머니교실, 교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전문가 및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한다.

7) 개방교도소 내 다메섹 교회 설립 및 주일예배, 개방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천안 시내 10교회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8)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전교인들이 함께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쌀을 모아 전달한다.

9) 외국인 근로자 선교 센터, 천안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한국민속촌, 독립기념관, 놀이동산과 같은 곳으로 나가 야외예배를 드려서 한국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들의 음식을 나누고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담, 미용서비스, 쉼터를 제공한다.

10)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불우이웃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인 천사운동본부를 완공하고 교단과 종교를 초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을 위한 섬김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북한·중국·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려는 비전을 품고 해외선교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1998년 7월에 중국선교의 비전을 품은 목회자들이 하늘중앙교회에 모여 화경선교회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사역해오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화경선교회는 중국 현지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인 사역자를 양성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중국이외에도 필리핀, 러시아, 탄자니아,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선교방식처럼 선교지에 현지인 사역자들을 양성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라. 하늘중앙교회의 성장요인

하늘중앙교회가 꾸준히 성장한 요인들 가운데 다음과 같이 눈에 띄는 몇가지가 있다.

##### (1) 뚜렷한 목회비전과 체계적인 장단기 목회계획

하늘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굳건히 붙잡고 목회를 조직해왔다. 유행처럼 흐르는 목회방법론들을 쫓지 않고 목회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를 분석하고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다. 비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온 것은 사역과 성장에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회계획이 체계적이다. 월별, 분기별 계획과 목표기준이 명확하며, 연간 목회계획뿐만 아니라 10년간의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로인해 목회자와 성도들의 탈진이 방지되었으며, 비전은 사역에 대한 중간점검의 확실한 기준이 되어 교회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 (2)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교회

하늘중앙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생활과 기도훈련이 강조되어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허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청장년회원들도 처음부터 사역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모인 것이 아니었다. 1997년에 유영완 목사가 평일에 말씀생활을 못하고 있었던 청장년들을 위해 새벽기도후 성경공부를 개설하였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된 청장년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회의 든든한 허리가 될 수 있었다. 이후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을 섬기는 비전이 유영완 목사

에 의해 제시됨에 따라 지금의 복지선교들이 하나 둘 시작되었다.<sup>227)</sup>

현재 실시하고 있는 네비게이토, 크로스웨이 성경공부, Q.T학교 이외에도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독려하며 속회에서 성경읽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성경필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도훈련을 강조하여 건축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릴레이 금식기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진행하고, 교구별 산상기도회와 특별새벽기도회 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역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

### (3) 열린 교회로서 지역사회

한국교회가 무속종교와 유교문화로 인하여 기복적이며 의존적인 신앙을 양산해왔으며 폐쇄적 가족주의와 다름없는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전술한 바 있다. 하늘중앙교회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회의 공동체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며 지역사회에 열린 교회를 지향하여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왔다. 그래서 오늘의 하늘중앙교회는 천안시에서 불신자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복지선교에 힘을 쏟아왔으며 열린 교회로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획된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세미나와 벚꽃축제는 천안의 불신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노인무료급식도 교회만의 구제에 그치지 않고 노인무료급식을 위한 시민견기대회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여서 천안시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위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재료를 모으고 미용실의 도움으로 무료이발을 제공하는 등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하늘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아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성도들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천안시에서 주목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다. 성장이라는 교회의 필요를 지역사회에 요

227) “목욕 나들이가 즐거운 사람들 : 천안중앙교회 청장년회 노인이동목욕봉사,” *기독교세계*, 2000년 11월호, 36.

구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실행하였기에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신뢰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하늘중앙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왔지만 사역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 3. 사역에서 나타난 문제점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들이 하늘중앙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성도들이 가진 은사파악이 부족하다. 한 몸된 공동체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팔 자리에 적합한 지체를 팔 자리에, 다리 자리에 적합한 지체를 다리 자리에 두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은사를 선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자의 은사에 적합한 사역의 자리를 마련해 줄때 소그룹의 대표적인 특성인 자발성이 향상된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지역, 나이, 직분에 의해 교회의 기관, 위원회, 소그룹을 조직한다. 하늘중앙교회도 지역, 직분에 따라 속회를 구성하고 구역을 편성한다. 또한 청장년선교회(41개 지회), 남선교회(6개 지회), 그리고 여선교회(28개 지회)도 은사에 따라 구성되지 못하고 연령에 따라 단편적으로 구분되어있고 직분에 의해 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자신의 은사와 거리가 먼 자리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와 섬김은 당사자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으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제 은사중심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 소그룹으로 속회와 기관을 편성하여서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사역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둘째,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삼위 일체로 존재하시며 교회의 지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공동체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의 일을 감당해야한다. 또한, 한

몸된 교회가 유기체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지체된 성도들이 활발히 살아 움직일 때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와 양육, 섬김과 봉사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더욱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복적이며 의존적인 성격의 신앙이 한국 무속종교에서 비롯된 성숙하지 못한 모습임을 기억하고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목회자 주도의 교회이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유영완 담임목사의 목회적 역량이 교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대형교회로 성장한 지금 시점에서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성장과 성숙은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늘중앙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평신도 지도자들의 사역비중을 좀 더 늘려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평신도 지도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져야 하며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속회와 교회의 각 기관들이 자치권을 갖고 좀 더 자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역자들의 이동이 빈번하다. 부교역자와 전도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사역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할 때가 있다. 특히, 전도사들의 이동이 빈번한데 이는 감리교단의 목회자수급 체계에서 오는 문제이다. 현재 감리교단에서는 담임목회 제도와 더불어 수련목회자 제도를 두어 3년간 입교인 300명 이상의 중, 대형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교단에서 정하는 수련목회자의 수는 한정되어있고 목사안수를 받은 후 담임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사역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전도사의 사역비중이 높은 교회학교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아직 한국교회가 전문사역자로 평생 사역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도 사역자의 잦은 이동의 이유가 되고 있다. 유교문화의 잔재들로 인해 권위주의적 구조와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 전문사역자들이 동역자로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교회적으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동역의 개념이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교회의 비전에 대한 인식부족 또한 사역자들의 잦은 이동의 원인이다. 하늘중앙교회는 복지선교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기에 현장에서

뛰는 일이 많은 교회이다. 담임목사로부터 시작하여 교회학교 학생들까지 주중에도 삶의 자리에서 전도와 봉사의 일을 끊임없이 한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훈련에만 집중하는 교회에서 사역하던 나눔과 섬김의 목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힘든 교회가 될 수 있다.

넷째, 전문 사역자가 부족하다. 교회의 규모와 다양한 사역에 비해 전문인이 많이 부족하다. 봉사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거나 사후 서비스가 결여된 일회성의 행사로 그치기도 하였다.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구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인적인 구원을 제공하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역의 중심을 잡고 자원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sup>228)</sup>

전문인 양성은 모든 소그룹의 지속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제이다. 사역에 대한 동기부여,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정보의 수집과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훈련된 전문인이 있을 때 소그룹이 더욱 활기를 얻으며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지역교회와 주민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때 전문강사를 초빙하는데, 이제 교회 내에서 전문인이 양성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호스피스, 의료선교, 장애우 사역에 관련하여 많은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은사발견세미나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도와 사역부서를 연결하고 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회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교회 내에서 양성할 수 없는 전문인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로 충원한다.

이번 장에서는 하늘중앙교회의 역사, 비전, 지역사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교회사역을 분석하여 교회의 성장요인과 사역에서 보강되어야 할 부분들을 발견했다. 하늘중앙교회가 복지선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실천하는 열린 교회로의 비전을 품고 사역을 해왔으며 그로인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왔음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선교를 행하고 있으나 천안지역의 열악한 복지 상황으로 인해 하늘중앙교회의 지역 사회에 대한 섬김 사역은 앞으로도 더욱 체계화되어야 함

228) 유영완, "성서에 나타난 복지 및 구제사상에 관한 연구" (아산: 호서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64.

을 알게 되었다. 이제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하늘중앙교회의 사역에서 드러난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을 찾아갈 것이다.

## 제 6 장

###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

지금까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가운데 복지선교를 행함으로 성장해온 하늘중앙 교회의 역사와 지역사회를 살펴보았으며, 사역의 분석을 통해 성도들의 은사에 대한 이해, 평신도 지도자 양성, 은사중심의 소그룹 강화 그리고 전문 사역자의 양성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음을 발견했다. 이제, 더욱 건강한 공동체 교회로 성숙해 지기 위해 이러한 필요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 제 1 절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전략

어떠한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은 목회자와 몇몇의 성도들의 노력만으로도 가능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지속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교회적인 합의와 동참이 필요하다. 사역이나 사회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과 합의란 그 교회의 문화이다. 교회의 문화는 모든 사역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는 전교회적으로 공동체성을 공유하는 것이다.

문화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성경적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에 흐르는 문화가 성경적이며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 1. 교회의 공동체성 공유를 위한 전략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공동체 교회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한 몸된 교회의 공동

체성과 모든 성도들의 지체됨에 대한 의식이 전제 되어야 한다. 풍성한교회와 같이 모든 성도들과 비전이 공유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의식과 지체의식이 지역사회에 까지 확장되어야한다. 이를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중점을 두고 사역 할 것이다.

먼저 공동체성이 드러나는 예배를 준비한다. 공동체적 예배는 함께 하는 예배, 성도들이 관객이 아닌 예배자가 되는 예배이다. 공동체적 예배를 구성하기 위해 설교는 성경공부나 강의와 같은 방식이 아닌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결론을 맺어야 한다. 설교의 처음 부분에 지난 주일의 말씀에 대한 삶의 적용을 간단히 물어보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주지시킨다. 예배시간에도 성도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방문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공동체 교회, 성도,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강화한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약화되어있는 예전, 성만찬의 횡수를 늘려 함께하는 공동체적 예배를 경험하게 한다. 예배에서의 성만찬은 관계를 연습하도록 성도를 돕는다. 성만찬을 통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실행한다. 성도들은 성만찬에서 공유된 경험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성만찬을 통해 연습한 관계적 삶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게 된다.<sup>229)</sup>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도들은 관객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올 것이며, 예배가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성도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 공동체적 예배이다. 이를 위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신앙간증이나 건강한 소그룹이나 가정을 소개하는 글, 그리고 성도들의 사진을 주보와 월보에 게재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을 받게하고 교회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게 한다.

둘째, 소그룹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경공부 교재에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추가 구성하고,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 구체적인 사회 윤리의 문제에 대해 소그룹 안에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편집한다. 모든 단원이 깊이있는 신뢰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29) Howard W. Roberts, *Pastoral Care Through Worship* (Macon: Smyth & Helwys, 1995), 38.



셋째,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04년도에 교회학교의 큰 성장이 있었다. 이는 푸른초장모임의 정착과 더불어 2004년 여름성경학교에서 행해진 지체의식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아이들이 은혜를 받은 후, 푸초모임에서 VIP 전도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다.<sup>230)</sup> 이러한 공동체의식과 지체의식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교회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성도들이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복지선교 사역과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행해지는 지역봉사에 경험할 수 있는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공동체의식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갖도록 한다.

넷째, 교회의 조직도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구성한다.

필자가 외국인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고 질문했을 때, 뜨거운 신앙의 열정, 권위적 구조와 항상 바쁜 목회자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존 한국교회의 구조는 체계적이지만 수직적이고 유연성이 부족하다. 당회와 평신도 기관들을 직분이 아닌 개인의 은사에 따라 조직하고, 의사결정의 과정에서도 전체 성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거의 모든 중요정책이 결정되는 당회에서 전 교회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정책에 대한 부서원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 정리하여 보다 많은 성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공동체성을 나타내도록 한다. 좋은 예로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감자탕교회로 더욱 잘 알려진 광염교회는 재정의 사용처와 금액을 주보에 항상 명시한다. 구제와 선교를 위해 작정헌금이나 특별헌금 항목을 따로 만들지 않고 교회의 재정으로 집행하며, 전체 성도들의 십일조로 구제와 선교가 이루어짐을 주보와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소외됨 없이 함께 공동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자신의 자리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외에도 공동식사, 전교인 체육대회, 장애인시설(경사로, 전용주차장),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직, 간접적으로 드러내도록 노력한다.

230)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 “천안중앙교회 교회학교 매주 10-20명 하나님 영접,” *울간 교사의 벗*, 2004년 10월호, 141.

전체 성도가 교회 공동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목회자는 지속적으로 한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와 관계를 전체 교회에 재확인 시켜나가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감으로써 성도의 삶 자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의 변증이 되는 복된 삶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현재적 실체를 세상에 보이는 것이며,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삶의 모습을 그 삶의 방법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서 회중이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이점을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물어야 한다.<sup>231)</sup> 또한, 목회자는 은혜(들어주고, 격려하고, 보살피 줌)와 진리(전략을 세우고, 도전을 줌)를 함께 소유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법을 알아야 한다. 성도에 대한 사랑을 품고 참된 것을 말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sup>232)</sup> 목회자의 역할은 비전과 목회철학을 제시하고 사역의 실무를 명령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역의 현장에서 삶으로 모범을 보임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 2. 교회의 공동체 문화 창출을 위한 전략

관계적 특성과 소외됨 없는 목회적 돌봄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점 때문에 소그룹이 폐쇄적 개교회주의, 이기주의, 기복신앙을 극복하고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에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음에 대하여 앞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소그룹의 장점을 최대화하는데 소그룹 사역의 초점을 두고 공동체 문화 창출을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첫째, 깊이있는 신뢰관계형성과 믿음의 성숙에 집중한다. 단회적인 프로그램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지라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더 이상 그 교회에 머무르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sup>233)</sup> 그래서 하늘

231) 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98-99.

232) Joel Comiskey, *셀그룹 폭발을 위한 교침*, 편집부 역 (경기도: NCD, 2004), 108-109.

233) Joseph Umidi & Lance Wallnau, *변화와 성장의 에너지*, 교침, 편집부 역 (경기도: NCD, 2005), 15.

중앙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닌 성도들이 공동체 속에서 신뢰가 흐르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

둘째, 한 몸이 되기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어느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없다.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

교회 내의 모든 의사소통의 통로를 이용하여 성도들의 소그룹 참여를 권고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리더와 모범적인 소그룹을 부각시켜 소그룹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 이를 위해 모범적인 소그룹 활동에 대한 비디오를 상영하거나 분기마다 모범 리더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한다.

첫째, 교회내의 자원 분석과 지원. 하늘중앙교회에서는 은사에 대한 교육을 3주 간에 걸쳐 실시한 후, 은사체크 리스트와 기질 테스트를 통해 은사를 파악하도록 한 후, 자신이 효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역의 부분에 지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은사개발을 위해 더 받기를 원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요구조사를 하고 적합한 세미나와 코치를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 은사는 사용하는 만큼만 개발 시킬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자신의 영적 은사의 범위 안에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은사를 개발 시킬 수 있도록,<sup>234)</sup> 교회내의 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단체들과 연계하여 사역의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코칭 시스템 도입. 코칭은 한 사람이나 그룹을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소망하는 더욱 유능하고 풍족한 곳으로 향하도록 인도하는 방법이며 행위이다.<sup>235)</sup> 목회사역에서 코칭이란 코치가 자신의 시각이나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이 섬기는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기에 상하조직 안에서 직위로 잘못 인식되어온 관점을 바로잡아줄 수 있다. 목회에서 우리가 지향해야할 변화를 일으키는 코칭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사람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때 이루어진다.<sup>236)</sup>

234) Larry Gilbert, *Team Ministry*, 290.

235) Gary R. Collins, *Helping Others Turn Potential into Reality : Christian Coaching* (Menasha: NavPress, 2001), 16.

코칭 목회사역의 목적은 코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지체 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며, 참된 제자되고 제자삼기를 기뻐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코칭을 통한 목회사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균형잡힌 목회를 지향한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신도 코치를 통해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균형잡힌 목회를 가능케 해준다. 이를 통해 독단적인 목회스타일이나 많은 이들이 소외되거나 이용당함에 대한 부정적 사고없이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

고독, 불안, 역기능 가정, 중독 등과 같은 문제들에 둘러싸인 현대인들은 건전한 공동체와 지지그룹을 통해서만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에 그들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돕는 목회적 코칭은 공동체와 공동체 성원 개개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의 제자들로 바로 세우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코칭 목회사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무엇보다 튼튼한 코칭 관계의 확립이다. 소그룹 구성원과 리더들 뿐만 아니라 리더의 코치와 코치의 코치들을 위한 코칭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하며, 모든 코치는 우선 리더와 소그룹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두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권세 아래에서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따름을 배운 후에 리더와 코치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sup>237)</sup>

상위 리더 체계가 굳건한 조직이 건강한 소그룹 구조인 것처럼 상위 코칭 체계가 굳건한 교회가 건강한 코칭 목회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는 소그룹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코치 구조 전체가 조직되었기 때문이다.<sup>238)</sup>

하늘중앙교회의 각 지역 리더들은 직분자로 구성된 코치로부터 코칭을 받으며, 코치들은 부목사와 담임목사의 코치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교역자들은 코칭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코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더욱 풍부히 갖추도록 노력하고 전문적인 사안 발생시 전문 코치의 코칭을 받는다.

236) Joseph Umidi & Lance Wallnau, *변화와 성장의 에너지*, 코칭, 70.

237) Kenneth O. Gangel, *최강의 팀워크를 만드는 전략노트*, 96.

238) Joel Comiskey, *셀그룹 폭발을 위한 코칭*, 144.

코치는 리더의 발전과 효과적인 사역 준비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 지식, 기회를 사용하고, 리더가 맡은 소그룹의 성장, 배가를 위해 격려, 공급, 도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리더가 소그룹 구성원에 대하여 민감하고 번거로운 사안에 직면해 있을 때, 코치는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해결책을 모색한다.<sup>239)</sup>

목회자와 코치들은 코치, 리더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더욱 깊고 공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어느 때나 목회자와 코치에게 다가가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들과의 대화의 통로(전화, 이메일)를 확보해 둔다.

### 3. 공동체 문화의 확장과 정착을 위한 전략

소그룹은 다양성, 상호의존성, 신뢰, 자발성, 사랑, 돌봄,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장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교회에서는 소외되고 특수한 문제상황에 처한 이들도 공동체 교회 안의 소그룹에서 용납되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공동체 문화에 젖어들어 참된 공동체 교회로 성숙되어져 전성도의 삶과 모든 사역 가운데 공동체성이 드러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행한다.

첫째, 특성화 소그룹을 운영한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성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하늘중앙교회는 소그룹을 특성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지체장애인이 있는 가정, 재수생을 둔 부모,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같이 특수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들로 이루어진 소그룹을 형성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드러내어 나눔으로써 동질감과 안정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교회에서는 특수한 소그룹을 위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천안시청 복지과의 도움을 받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천안 주민들도 이러한 소그룹 사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교회는 성도들이 천안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전할 수 있

239) Joel Comiskey, *셀그룹 폭발을 위한 코칭*, 15, 142.

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의 필요를 살피며 사역의 현장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해나간다.

둘째, 공동체 교회로서 하늘중앙교회는 열린 교회인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교회 내적으로도 공동체 문화의 확장을 위해 하늘중앙교회가 열린 교회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시행되어야 한다. 새신자와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공간도 들어서면 순간부터 공동체성이 쉽게 느껴지는 열린 공동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교회의 공간이 주중에 얼마나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공간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셋째, 지체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다.

교회는 획일화된 조직이 아닌 다양한 가치관과 상이한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모여 하나를 이룬 유기체이기 때문에, 갈등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얼마나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가이다. 갈등을 잘 다루면 폭넓은 이해와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여 사역을 더욱 잘 행할 수 있게 된다.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한 공동체는 더욱 깊은 신뢰관계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갈등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성원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에게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sup>240)</sup>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리더는 먼저 그 갈등이 '가치'에 대한 갈등인지, 실제적인 갈등인지, 아니면 두가지가 합해져서 나온 것인지 갈등의 본질을 분석해야한다. 그리고 대결상황에서 서로의 흠을 잡거나 공격하는 것을 피하고 그 갈등이 소그룹과 조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 귀기울이도록 인도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해결목표를 설정한다. 그 해결목표를 향한 여러가지 대안을 나누고 목표와 관련하여 그 대안들의 장단점을 예측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얻어진 해결책을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후 평가한다. 평가를 바탕으로 더 좋은 해결책들을 찾아나간다.<sup>241)</sup> 모든 소그룹은 갈등상황에 대면하게 되어있음을 알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 서로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240) Dale Galloway & Beeson Institute Colleagues, *Building Teams in Ministry* (Kansas: Beacon Hill Press, 2000), 137.

241) John Mallison, *생동감 있는 소그룹매뉴얼*, 157-159.

수 있기를 기대하고 노력한다.

우리가 갈등을 직시하고 화해를 추구하면 화목을 이루게 되지만 회피나 공격적인 반응으로 갈등을 대하면 관계의 단절을 불러온다.<sup>242)</sup> 교회 내의 많은 갈등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바른 언어생활과 대화훈련을 통해 투명한 관계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대화법 훈련 세미나와 성격유형분석 세미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다양한 성격유형에 대한 지식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격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MBTI방식<sup>243)</sup>은 잠재의식을 비롯한 개인의 성향 분석에 그 초점이 있고, DISC방식<sup>244)</sup>은 소그룹에 적용하여 상대방과 나의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를 인식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 가능하다.<sup>245)</sup>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거의가 한마디의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올바른 대화법과 상호간의 존중의 마음, 그리고 침묵의 귀한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교회는 참된 공동체로서 성숙되어질 것이다.

교회의 공동체 문화형성은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대형교회의 경우 공동체 문화만으로 유기체적 교회를 이루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앞에서 기술했던 바와 같이 소외됨 없는 돌봄이 있는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제공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교회에서는 거부반응을 최소화하면서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

242) Kenneth Sande, *피스 메이커*, 황규명 역 (서울: 국제개발원, 2001), 36.

243) MBTI 유형검사 (Myers-Briggs Type Indicator) : 이사벨 마이어스(Isabel Myers)와 그의 모친 캐더린 브릭스(Katherine Briggs)가 융의 이론을 연구하고 고안한 성격유형검사로써, 네 가지 영역의 선호지표(관심의 대상, 정보의 인식, 정보의 평가, 외부 세계 처리 방식에 대한 선호지표들)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Bruce Litchfield & Nellie Litchfield,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Vol. 6*, 정동섭·정성준 역 (경기도: 예수전도단, 2005), 210-211.

244) DISC 성격유형검사 (The DISC Personal Profile System) : 카보넬과 로버트 롬 (Carbonell and Robert Rohm)이 사용한 인간 행동 검사로서 인간의 행동에 따라 DISC유형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분석한다. 이 검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Ibid., 228-229.

245) 정세광, *건강한 관계 세우기 소그룹 워크북*, 국제터치본부 역 (서울: NCD, 2006), 2.

참조: 홍광수, *DISC 검사 설문지*, (서울: NCD)

해 전체 교회를 단번에 새로운 소그룹 체제로 바꾸는 것보다 기존 소그룹들을 보강하고 필요한 인력과 소그룹들을 보충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늘중앙교회의 소그룹 체계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 제 2 절 소그룹 체계 강화

활기찬 교회는 셀그룹이나 소그룹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소그룹 없이 활기찬 교회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소그룹을 위한 마술같은 공식은 없다. 소그룹들은 지나치게 프로그램화 되어서는 안된다.<sup>246)</sup> 이제 소그룹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소그룹을 더욱 소그룹답게 만들고 평신도 소그룹 리더를 양성하여 하늘중앙교회를 더욱 활기찬 교회로 만들어 나갈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 1. 기존 소그룹의 강화

새로운 소그룹을 만들기 이전에 기존의 소그룹을 활성화하고 평신도기관을 소그룹화 함으로써 하늘중앙교회의 소그룹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첫째, 속회의 소그룹 기능을 강화하고 교회학교 푸초모임과 연계시킨다. 속회는 지역별로 조직, 운영되고 있다. 자치적인 모임이라고는 하나 속장과 인도자에게 책임과 권한이 더 주어져야 할 것이다. 속회헌금과 기타재정을 각 속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소그룹의 중요한 특성인 자발성을 높인다. 3-4개의 속이 연합하여 지역과 해외 선교지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교회학교 푸초모임과 연결시켜서 지역의 부모들, 성도들이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각 구역마다 부부속회를 시범적으로 조직하고 시간을 두고 확대 실시해 나간다. 현재 속회는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 성도들만의 소그룹이다. 점점 맞벌

246) Howard A. Snyder & Daniel V. Runyon, *Decoding The Church : Mapping the DNA of Christ's Bod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39.



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직장여성들과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하다. 부부속회를 조직하고 직장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모임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지금까지의 속회는 교제와 말씀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섬김과 봉사의 일이 약하다. 소그룹 내에서의 협력과 교제에만 집중하거나 소그룹의 모임의 확장과 배가에만 신경을 쓴다면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없다. 부부속회는 말씀 양육, 교제, 전도,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며, 함께 하는 소그룹을 이루기 위한 길이다.

둘째, 3개의 평신도 기관을 소그룹으로 전환한다. 운영위원회는 유지시키되, 3개의 평신도 기관을 사역을 위한 소그룹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3개의 평신도기관은 과업그룹, 지원그룹, 코이노니아그룹의 특성이 강조되어왔다. 그래서 교회사역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면서도 그 기관 안에서 신앙훈련과 말씀훈련을 통한 그룹과 구성원들의 신앙성숙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사역과 신앙훈련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섬김과 봉사, 친교와 선교의 사역들을 행하면서도 마찰과 분쟁의 소지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구역, 연령별로 큰 단위로 편성되어 있기에 사역에서 소외되어 함께 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평신도 기관들을 소그룹으로 전환하게 되면 말씀,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성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그룹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전체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남성 교인들의 신앙훈련, 말씀훈련이 생활 속에서 강화될 것이다.

속회를 더욱 소그룹답게 세워 지역의 어린이들까지 통합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고, 평신도 기관들을 건강한 소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위를 평신도 지도자들과 분담하는 팀 리더십과 교회적인 지원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책임과 권위를 평신도 지도자들과 분담한다. 전문화, 특성화되는 사회 속에서 목회자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은사를 소유한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책임은 항상 전체 공동체 교회에게 있는 것이지 특정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다.<sup>247)</sup> 그래서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임무를 위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다른 목회자들에게 임무를 위임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평신도를 세워 그들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선용하게 하는 일을 해야한다. 평신도사역자들을 새로 세워 책임과 권위를 위임하는 것을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의 길이 열리고 목회사역의 확장이 시작된다.

임무의 위임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평신도들은 사역에 대한 자극과 성취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자발적으로 땀 흘리기 시작한다.

임무의 위임을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은 영적은사에 대해 또한, 목회사역과 영적은사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 이후에 자신의 역할, 리더십의 스타일, 자신의 위치를 바로 보게 되며, 타인의 은사에 대한 동경을 버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더욱 선한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긴밀히 연합되어있음을 인식하고 기쁨 가운데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은사를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 있어서 그 지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감당할 때, 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sup>248)</sup>

구역장과 소그룹 리더를 맡은 이들에게 교회가 공적으로 부여하는 권위를 자각하게 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한다. 이를 통해 성도들의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도 낮아지게 된다.

책임과 권위의 분담은 방임하거나 소그룹을 공동체 교회에서 따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그룹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역을 행하는 동시에 언제나 한 몸된 하늘중앙교회의 지체이다. 소그룹과 교회는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교회 차원의 지원과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있어야 한다.

넷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체계를 확립한다. 소그룹에 대한 지원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 1) 감독, 목회자와 구역장이 각 소그룹에 대해 돌봄과 양육, 소그룹 배가에 대한

247) Lovett H. Weems, Jr, *Leadership in the Wesleyan Spiri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59.

248) Larry Gilbert, *Team Ministry*, 29-30, 226.

준비 등을 점검한다.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소그룹의 리더와 조원들에 대한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직접 소그룹에 참여하여서 살아있는 감독이 되도록 한다. 소정의 훈련을 받고 소그룹 리더로 사역하는 이들도 정기적인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 리더들은 이런 감독체제를 통해 교회로부터의 이탈, 잘못된 신앙, 영적무기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sup>249)</sup>

2) 소그룹 조정자. 소그룹 조정자는 리더 그룹을 구성하여 실제적인 코치의 원리들을 본으로 보여주며 리더들이 그룹 구성원들이 가진 은사를 개발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돕는다. 담당목회자와 소그룹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리더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훈련을 담당목회자와 논의, 계획, 실행한다.<sup>250)</sup>

3) 관찰자. 리더와 조원들이 자신이 속한 소그룹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소그룹에 속해 있으며, 전에도 소그룹 경험이 있었던 조원들이 서로 다른 소그룹을 관찰하고 자신이 발견한 사항들을 리더와 조원들에게 알려준다.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소그룹 체계가 강화되었을 지라도, 그것만으로 소그룹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하지 않는다. 소그룹의 건강한 유지, 성장, 배가를 위해서는 소그룹을 이끌어갈 소그룹 리더가 끊임없이 세워져야 한다.

## 2. 소그룹 리더의 발굴과 훈련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세대와 장소를 지나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종들을 필요로 했음을 보게 된다. 소그룹 사역에서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리더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 어떤 이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워야 하는가?

한때 많은 이들이 소그룹 리더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엘 코미스키(Joel Comisky)는 방대한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를 가지고 특정한 은사의 리더만이 소그룹을 효율적으로 이끌며 배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249) Carl F. George,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박종훈·정종현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66.

250) John Mallison, *생동감있는 소그룹매뉴얼*, 349-352.

한다. 그는 또한 성격유형이나 직업, 학력, 성별, 결혼상태 등이 소그룹 리더로서의 효율성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밝혀냈다.<sup>251)</sup> 소그룹 사역을 위한 리더들은 특정한 은사보다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열매 맺는 삶. 전도와 사랑의 열매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리더의 열매맺는 삶은 최고의 소그룹 교재가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보이지 못하는 리더는 결코 권위를 가질 수 없고, 조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

2) 하나님을 의지함. 소그룹 리더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함이 요구된다. 비록 잘 준비되지 않은 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그룹과 영혼을 섬기는 일에 대한 열정과 감사가 있다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성숙한 리더의 모습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분의 음성에 민감한 리더, 성령님의 원하심을 주저함 없이 행하는 리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리더이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리더가 효과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하고 번식시킨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리더들은 놀라운 지도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나타내며, 조원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리더를 신뢰하고 뒤따른다.<sup>252)</sup>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이 당신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기억해야 한다.

3) 분명한 소명의식. 리더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그룹이 힘든 문제를 겪을 때 확실한 소명의식을 가진 리더가 그 시간을 잘 인내할 수 있으며, 사람의 기쁨과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택할 수 있다.

4) 사역에 대한 열심. 소그룹의 말과 행동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이어야 한다. 부정적인 말로 소그룹의 조원들을 낙담시키는 리더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많은 리더들이 소그룹을 이끌지만 현실 속에서 모든 이들이 소그룹을 배가시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리더들은 더욱 성장한다. 소그룹 목회 가운데 어떤 리더들은 실패하고, 어떤 그룹은 해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

251) Joel Comiskey, *셀 그룹 폭발*, 45.

252) Joel Comiskey, *셀 그룹 폭발*, 50.

속에서 리더는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수정해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sup>253)</sup>

5) 신뢰를 얻는 자. 참된 리더로서의 자질은 성경공부 교재를 잘 다루고, 모임을 실수 없이 인도하는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삶을 나누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삶, 내적 고통을 내보일 정도까지 리더를 신뢰하는 가에서 찾아야 한다.<sup>254)</sup> 신뢰가 바탕이된 관계의 힘은 기능이나 행정에 대한 지식을 압도한다. 신뢰를 얻는 리더는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은사가 자신에게 없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리더를 신뢰하는 이들이 가진 다양한 은사가 자발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6) 낮은 자리를 자청함. 리더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 특히, 겸손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을 비워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리더의 삶 가운데 낮아지는 모습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리더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경험이 있는 이로서 타인을 섬기기 기뻐하며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깊은 관계가 드러나며 다른 이들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sup>255)</sup> 소그룹 모임에서 리더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 자신의 부족함과 은사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소유한 자들을 눈여겨보고, 예비리더로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리더는 지금 리더로 잘 준비된 사람을 예비리더로 찾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 속에서 그의 힘과 능력이 자라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이는 지금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못한 일을 미래에는 가능하도록 힘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훈련이기 때문이다.<sup>256)</sup>

교사, 속회 인도자, 속장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가 열리고 있지만 소그룹 리더들을 위한 정규 훈련과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D-12 양육시스템 가운데 제자대학과정을 소그룹 리더 훈련과정으로 신설한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새신자반과 양육반은 유지하고 두 과정을 이수한 이들에 한하여 제자대학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53) Ibid., 103.

254) Carl F. George, *다가오는 교회혁명 이렇게 대비하라*, 81.

255) Neal F. McBride, *How to build a Small Groups Ministry* (Menasha: NavPress, 1995), 111-112.

256) Dallas Willard, *하나님의 모략*, 276.

자대학과정에서 의무화 되어있는 리더 수양회를 개설하되 사역 소그룹의 리더들을 위해 필요중심의 커리큘럼을 계획하여 제공할 것이다.

소그룹 현장은 리더훈련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이는 소그룹 안에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공동체에 헌신할 때 가장 잘 훈련되기 때문이다. 예비리더들은 리더들과 함께 하면서 사역을 경험하고 자신이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음을 느끼며 다른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시간을 통해 성장한다.<sup>257)</sup>

기존 리더는 소그룹 모임시 예비리더에게 인도할 기회를 주고 조언과 평가를 통해 예비 리더를 세워 나갈 수 있다. 또한 모임과 모임사이의 시간에도 다른 조원들에 대한 양육과 돌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리더십을 키우도록 배려해야 한다.<sup>258)</sup> 예비리더가 지속적으로 발굴, 양육되어질 때, 안정적인 소그룹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리더들은 코칭관계 속에서 예비리더들을 발굴하고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코칭하면서 양육시킨다.

이렇게 리더들이 발굴되고 훈련되어 세워졌을지라도 홀로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리더는 다른 소그룹의 리더들과 소그룹을 이루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를 형성해야한다.

### 3. 다른 소그룹, 외부 전문 인력과의 연계

소그룹들은 각각 고유의 특색과 문화적, 계층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상황들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소그룹들이 만나게 되는 공통적인 단계들과 문제들이 있다. 유사한 문제에 대해 다른 소그룹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나누는 과정에서 더 나은 해결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도 리더 소그룹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모여 소그룹내의 문제들과 역동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해야한다. 이때, 리더들은 자신이 고민하는 것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다른 리더들을 보고 위로와 격려,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사역의 목표를 재확인하며 서로에

257) Jeffrey Arnold, *The Big Book on Small Group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23.

258) Carl F. George,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89, 91.

게 동기부여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리더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소그룹과 조원들이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소그룹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 이때, 리더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의 전문기관들을 미리 파악하고 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를 이루어져야 한다. 리더는 도움을 청할 전문인 선택시 문제의 심각성과 소그룹 내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4. 정기적 평가 시스템 구축

평가는 사역을 일관성 있게 하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고쳐나가도록 돕는다.<sup>259)</sup> 평가를 통한 투명한 운영이야말로 성공적인 사역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사역의 장단점을 수정, 보완해 나간다. 효율적인 소그룹 사역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월례회와 분기별 리더자모임)을 통해 하늘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성경에 근거한 전략과 적절한 훈련을 계획하고 사역분석을 통해 재조정한다. 목회자와 코치들은 리더그룹을 잘 이끌기 위해 우선순위를 재차 확인하는 가운데 부차적인 일들로 인해 목회적 역량이 소진되는 일을 예방한다.

리더는 여러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적절히 균형을 이루며 바르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리더들은 정기적인 리더모임을 통해 소그룹을 평가하고 소그룹의 목적, 구성요소들 중 어느 한쪽에 지나친 편중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리더들은 소그룹 안에서 조원들의 성장, 소그룹 계획의 성취도와 가능성, 소그룹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사, 평가하고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조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찾아나가야 한다.<sup>260)</sup>

목회자에게도 자신의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 걱정되는 사안 등을 솔직히 드러내 놓고 나눌 수 있는 신뢰관계 속에 형성된 모임이 있어야 한다. 솔직한 평가의 시간을 통해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법과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요소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261)</sup> 그래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상호 책임의 관계가 필

259) Aubrey Malphurs, *침체된 교회 부흥 전략*, 남성수 역 (서울: 아가페, 2000), 316.

260) Ron Nicholas,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70-71.

요한 것이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는 목회자만이 코치로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모임을 항상 확보해 두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역과 자신과 성도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제 3 절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지금까지 하늘중앙교회에 공동체 문화를 창출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과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 소그룹 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제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을 그려 나갈 것이다.

#### 1. 공동체 문화 공간 형성

교회에 공동체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 주민과 소그룹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가. 열린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지역주민을 위해 본관 1층 서점의 옆 공간을 활용하여 열린 도서관을 개설한다. 신앙서적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반서적들을 비치하여 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만든다. 시립도서관과 각동의 주민 센터들과 연계하여 어디에서든 자료의 대출 반납이 가능하도록 상호대차 서비스를 추진한다. 단순한 책 대출 반납의 기능만을 하지 않고 문학 관련 소그룹을 운영하고 글쓰기 교실, 외국어 교실, 동화구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을 섬긴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독서확대기와 음성지원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천안 지역의 문화시설, 음식점 등으로부터 할인권 등을 지원받아 열린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줌으로써 열린 도서관을 천안지역에 홍보하고 활성화시킨다.

261) Clyde Reid, *성숙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운동*,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72.



### 나. 쉼터

주일과 세미나가 열릴 때 한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공간을 쉼터로 정비하여 평일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쉼터는 열린 공간으로써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 먼저 참석한 후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새신자들을 위해 주일예배가 아닌 평일에 쉼터에서 소그룹 모임을 가짐으로써 교회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다. 체육시설

일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기도 하지만 그 수가 한정되어있고 학생들의 등교 전, 하교 후 3-4시간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사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늘중앙교회 본관 뒤의 공터에 미니축구장과 노인을 위한 정구장을 설치하고 지하 체육관에 농구대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체육활동에 필요한 용구들을 준비하여 무료로 대여하고 체육관련 소그룹을 형성하여 불신자들과의 접촉점을 만든다. 체육 용구와 시설의 관리는 1층 교회 사무실에서 한다.

## 2. 특성화 소그룹 운용

지역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그룹과 천안시 복지행정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소그룹들을 운영한다.

### 가. 자녀교육 소그룹

한국인 부모의 최고 관심사는 자녀교육이다. 하늘중앙교회에서는 현재 수요 어머니교실을 통해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와 아동발달 이해 등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수요 어머니교실을 중심으로 입시생 자녀가 있는 가정, 유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가정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가정들을 소그룹으로 만들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도록 한다.

### 나. 중독자 가정 소그룹

모든 중독증상은 단기간의 치료로 완치되지 않는다.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싸워

이겨내야 한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중독자가 있는 가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중독자 가정에서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서로 아픔을 나누며 격려함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덜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

#### 다. 미혼모 소그룹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미혼모는 사회활동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심리적 위축감과 우울증, 공포감 등을 겪게 된다. 미혼모를 위한 소그룹을 만들고 쉼터를 제공하며 심리치료사와 상담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다. 자신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마더와이즈를 수료한 여성성도들을 중심으로 미혼모 소그룹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 라. 전문인 소그룹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분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 분의 뜻을 좇아 삶의 모든 영역을 선교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고 그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이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다.<sup>262)</sup>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느헤미야는 농부, 목자, 정치가 등과 같은 그들의 전문 직업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갔다. 우리는 그들이 세속적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90퍼센트 이상의 성도들이 전임 목회자나 가르치는 사역자의 역할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90퍼센트 이상 직장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한다. 그래서 코치된 자들은 지체들을 섬김에 있어 그들의 직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터전으로 코칭의 장으로 삼아야 하며, 코치를 받는 이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

262) R. Paul Stevens, *The Other Six Days : Vocation, Work, and Ministry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0), 158.

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으며 지배적인 정치, 경제의 벽들을 뛰어넘어 원수에게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다윗과 요셉과 같이 살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sup>263)</sup>

유사 직종별 직장 선교 소그룹을 조직하여 신앙훈련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정보공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하늘중앙교회의 리더들은 직장에서의 소그룹의 형성과 예비리더로 섬길 사람을 작정하고 위해서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 중보한다. 목회자는 직장선교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기에 힘써야 한다. 효율적으로 직장선교를 해나가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와 임원들을 초청하여 효과적으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는 방법들을 배운다.

### 3. 기존 복지선교 소그룹의 체계화

사역의 연속성과 체계화를 위해서 사역지침서와 사역실무지침서를 제작한다. 사역지침서에는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일반규정을 명시하고, 사역실무지침서에는 각 사역을 어떻게 행해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기재한다. 복지선교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한 사역지침서를 제작해 놓으면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고 성도들의 새로운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면서 성도 개인들의 섬김의 자리를 확인시킴으로써 새신자들도 빨리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전문 사역자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직을 개편하고 사역 분담표를 만들어 교회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도들의 책임의식을 높인다.

또한, 아래와 같이 기존 복지선교 소그룹들의 사역을 다양화, 전문화 시켜서 사역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한다.

#### 가. 목욕봉사

권사회와 청장년회가 주축이 되어 하던 목욕봉사 사역을 사역 소그룹 중심으로 전환한다. 단편적인 조직에서 벗어나 자신의 은사를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선용하게 되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역이 될 것이며, 성도 개개인의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천안시의 복지행정이 미처 알지 못했던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세심하게 섬길

263) Joseph Umidi & Lance Wallnau, *변화와 성장의 에너지*, 교침, 123, 170.

수 있게 된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관리한다. 천안시내의 대학교와 산업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었는데 이제는 중, 고등학교와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도 협조공문을 보내어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한다. 직장 선교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전문인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쉬워질 것이고, 사회봉사활동이 대학진학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천안시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협력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 나. 경조회

기존의 상조회의 사역을 인생전반의 일로 넓혀서 통합관리체제를 형성한다. 결혼, 출산, 개업, 생일, 입학, 졸업, 입주, 취업과 같이 기쁜 시기와 재난, 사고, 파산, 임종, 추도 등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한다. 이를위해 소그룹 리더를 통해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애경사를 파악하고 경조회에 연락한다.

#### 다. 노인복지센터

복지사와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 천안시 독거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설립될 노인복지센터의 입소자를 선발하고 지역 노인들을 위해 제공해야 할 서비스들을 확인한다.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단순한 주거제공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노인복지센터 내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평일에는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만들고 주말에 도시에서 들어오는 어린이, 가족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한 의료봉사와 호스피스 사역을 실시한다.

### 4. 지역사회와의 연계

교회 내의 자원만으로 지역 사회와 소그룹들의 필요를 충족 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웃교회와 지역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은 소그룹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사역을 지역사회로 확장시키는 길이 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바 있는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개교회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연합의 길을 여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중앙교회는 천안지역의 상담기관, 장애인시설 등과 연계하여 사역을 전문화하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원거리에서 출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사역은 천안, 평택, 아산지역 교회들의 외국인 성도 현황을 파악하고 출신국별로 분석하여 가까운 지역의 교회와 출신국별 소그룹들에 연결시켜준다. 예를 들어, 천안 소재의 산업공단보다 새로 들어서는 아산, 평택, 당진 소재의 공단과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기 시작하므로 인근의 외국인 선교에 비전을 가진 인근 교회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하늘중앙교회는 천안시 네팔외국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네팔 외국인 근로자 자치상조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규모가 크지 않은 농촌교회라고 할지라도 국제 결혼에 의해 부부속이 정착된 교회(예: 아산 신성감리교회)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각 교회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연합으로 농촌에서도 외국인 선교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하늘중앙교회에서 실행해 갈 전략들을 기술하였다. 공동체성이 드러나는 예배, 성경공부교재,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 조직, 재정 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교회가 공동체성을 공유해 나가고, 공동체 문화 창출을 위해 지체된 성도들과 그들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아래 깊이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은사에 따른 사역의 길을 만들어 평신도 지도자들과 동역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 항상 열린 교회로서 교회내외의 필요에 귀기울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등상황들을 풀어나갈 것이다. 속회의 소그룹 기능을 강화하여 함께하는 소그룹으로 재조직하고 평신도 기관을 사역 소그룹으로 전환하고 책임과 권위를 분담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서 기존 소그룹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또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사역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기관들과 연계하고 정기적인 평가시스템과 코칭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사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조정해 나갈 것이다.

## 제 7 장

## 결 론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문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하고 세상에 진정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자하는 갈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시도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소그룹 사역은 오늘의 한국교회에 서서히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고 있다.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소그룹 사역은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며, 그런 과정을 겪고 난 후 소그룹 사역이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방법론이 아닌 그 자체로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필자는 소그룹 활성화에 한국교회의 깨지고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이 있음을 주장하기 본 논문을 시작하였다.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이를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 교회에 대한 신학적 정립과 소그룹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고, 이러한 이유로 2장과 3장에서는 공동체 교회와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론적 토대를 쌓았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지체로서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공동체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의 존재론적 이유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았으며, 공동체적 존재로 태어났으나 공동체의 파괴로 인해 소외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공동체를 제공할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공동체가 되고 지체된 성도들이 공동체의식과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소그룹 활성화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3장에서는 소그룹의 정의와 특성, 소그룹 신학에 대해 살펴보고, 현 시대 속에

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소그룹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유용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소그룹은 공동체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그룹을 통해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화목케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극단적 개인주의, 자존감의 상실, 계층간 갈등과 같은 문제 상황에 처한 현대 속에서 교회마저도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공동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 있기에 공동체적 특성을 지닌 소그룹의 활성화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 시급함을 알게 되었다. 4장에서는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성이 회복, 강화되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풍성한교회와 화평교회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필자는 이러한 공동체 교회와 소그룹에 대한 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늘중앙교회에서 소그룹을 활성화 시켜 공동체성을 회복,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려 하였다. 이에 5장에서는 하늘중앙교회의 역사, 비전, 목회적 상황을 살펴보고 보강되어야 할 부분들을 찾아보았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복지선교를 통해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까지 어우르는 실질적인 공동체 개념을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심기 위해 노력해온 하늘중앙교회의 땀과 결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은사파악의 부족, 목회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사역자의 잦은 이동, 그리고 전문사역자의 부족과 같은 보강되어야 할 사역의 부분들도 눈에 띄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소그룹 활성화 전략들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교회에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공동체성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전략들을 예배, 교회조직, 재정집행, 교회시설 등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공동체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으며, 신뢰관계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회 내의 자원 분석과 지원, 코칭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소외됨 없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위해 특성화 그룹의 운영, 열린 교회에 대한 지속적 점검,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하늘중앙교회의 소그룹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기존 소그룹의 재편성, 평신도기관의 소그룹 전환, 책임과 권한의 위임, 지원과 관리 체계에 대한 보강, 소그룹 리더의 발굴과 훈련, 그리고 정기적 평가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구

체적 전략으로 지역주민과 소그룹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 소외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한 특성화 소그룹의 운용, 하늘중앙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복지선교의 체계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본 논문으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깊은 신뢰관계 가운데 모든 구성원들이 지체로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인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교회 속에 내재된 개교회주의, 이기주의, 기복신앙을 극복하여 초대교회가 세상을 향해 삶으로 보여 주었던 유기체적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부흥의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공동체성과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을 통해 보여주신 소그룹 사역의 원리에 교회와 성도 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건강한 공동체 교회, 새로운 부흥으로의 길이 있다고 확신한다.



## 참고 문헌

### 1. 국내서적

-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2001.
-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유교적 가족주의를 극복할 공동체 교회가 답이다*, 경기도: 브니엘, 2006.
-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멘토, 2002.
-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NCD, 2007.
- \_\_\_\_\_, "우리 교회 전도를 말한다," *월간 목회*, 2007년 8월호.
- \_\_\_\_\_, "나의 셀목회 현장이야기,"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호.
- \_\_\_\_\_, "한국적 토양 위에서 재생산," *목회와 신학*, 2007년 7월호.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제자, 1997.
- 김진형, *천안땅 최초의 교회 하늘중앙교회 100년사*, 충남 천안시: 기독교대한감리회 하늘중앙교회, 2007.
-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 남경태, *개념어 사전*, 경기도: 들녘, 2006.
- 남기철, *현대신학해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대한기독교서회, *그리스도교 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 문석호, *21c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추, 1998.
- 박봉배 외, *기독교윤리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 2007.
- 박준형,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목회와 신학*, 2007년 7월호.
- 박찬식, 이우성, *2020프로젝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0.
- \_\_\_\_\_,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 서울: 평단문화사, 2007.
- 유영완, "성서에 나타난 복지 및 구제사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

- 행정사회복지대학원, 1999.
- \_\_\_\_\_, "지역사회 복지선교를 통한 전도전략." 전도세미나 강의록.
- \_\_\_\_\_, "목욕 나들이가 즐거운 사람들 : 천안중앙교회 청장년회 노인이동목욕봉사." *기독교세계*, 2000년 11월호.
-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0집*, 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03.
- 이문장, "왜 한국에서의 기독교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나," *목회와 신학*, 2004년 제146호.
- 이성희, *교회행정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_\_\_\_\_,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이숙종,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 서울: SFC출판부, 2005.
- 이요섭, *현대인을 위한 교회행정*, 서울: 예빛서원, 2002.
- 이원규, *종교사회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_\_\_\_\_, *한국 사회 문제와 교회 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_\_\_\_\_,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이종성,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 전요섭, *인간관계훈련*, 서울: 은혜, 1994.
- 정세광, *건강한 관계 세우기 소그룹 워크북*, 국제터치본부 역, 서울: NCD, 2006.
- 정응섭, *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정진우, *21세기 리더십은 코칭이다*, 경기도: NCD, 2004.
- 조종남, *로잔 세계 복음화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IVP, 1990.
- 최상태, "성공적인 제자훈련 정착을 위한 9가지 제언," *교회와 교육*, 2005년 가을호.
- \_\_\_\_\_,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최성수, "교회 공동체성의 근거로서의 삼위일체," *목회와 신학*, 2000년 10월호.
-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채이석,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D12,” *목회와 신학*, 2007년 7월호,  
 하늘중앙교회, 2007년도 당회록  
 한국기독교교육연합회, “천안중앙교회 교회학교 매주 10-20명 하나님 영접,” *월간 교사의 벗*, 2004년 10월호,  
 홍광수, *DISC 검사 설문지*, 서울: NCD,

## 2 번역서적

Anderson, Leith, *21세기를 위한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솔로몬, 1997.  
 Arthur, Kay, *하나님의 이름*, 유윤호 역, 서울: 프리셉트, 1996.  
 Banks, Robert, *바울의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Collins, Gary R,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기초*,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Corniskey, Joel,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_\_\_\_\_, *셀그룹 폭발을 위한 코칭*, 편집부 역, 경기도: NCD, 2004.  
 Dawn, Marva J, *희열의 공동체*, 이종태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4.  
 Donahue, Bill & Robinson, Russ,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Frazee, Randy,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Gangel, Kenneth O, *최강의 팀워크를 만드는 전략노트*, 김창동 역, 서울: 디모데, 2003.  
 George, Carl F, *다가오는 교회혁명 이렇게 대비하라*, 전의우 역, 서울: 요단, 2002.  
 \_\_\_\_\_,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 2000.  
 \_\_\_\_\_,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박종훈·정종현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Gilbert, Larry, *Team Ministry*, 채수범 역, 서울: 프리셉트, 2002.  
 Grenz, Stanley J,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신옥수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Henrichsen, Walter A, and Garrison, William N, *평신도 사역자를 계발하라*, 유재성 역, 서울: 나침반 1998.  
 Hestenes, Roberta, *Growing the Church through Small Group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강의록, 1992.

- Icenogle, Gareth W. *The Church in Ministry through Small Group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강의록, 2006.
- Litchfield, Bruce & Litchfield, Nellie.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Vol. 6*. 정동섭 · 정성준 역. 경기도: 예수전도단, 2005.
- Long, Jimmy. *소그룹 리더 핸드북*. 서울: IVP 자료 개발부, 2006.
- Mallison, John. *성동감 있는 소그룹 매뉴얼*. 신재구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 Malphurs, Aubrey. *침체된 교회 부흥 전략*. 남성수 역. 서울: 아가페, 2000.
- Migliore, Daniel L.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장경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Moore, John & Neff, Ken. *이제는 목회방법이 거듭나야 합니다*. 한상석 역. 서울: 나침반, 1996.
- Neighbour, Ralph W.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2000.
- Nicholas, Ron.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9.
- Reid, Clyde. *성숙한 교회를 위한 소그룹 운동*.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_\_\_\_\_.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쿰란, 1996.
- Robertson, Palmer, O.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Sande, Kenneth. *피스 메이커*. 황규명 역. 서울: 국제개발원, 2001.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외 3인 공역. 서울: NCD, 2000.
- Snyder, Howard.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 \_\_\_\_\_.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Stanley, Andy & Willits, Bill.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이증순 역. 서울: 디모데, 2006.
- Stevens, Paul R.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사, 1997.
- Stevens, Paul R. and Collion, Phil.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0.

- Stott, John R. W. *현대교회와 평신도 훈련*, 김기영 역, 서울: 엠마오, 1994.
- UMC, *개체교회 지도자 지침서 2005-2008*, 미국: 연합감리교회출판부, 2004.
- Urnidi, Joseph & Wallnau, Lance, *변화와 성장의 에너지, 코칭*, 편집부 역, 경기도: NCD, 2005.
- Wagner, E. Glenn,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Watson, David, *교회의 진정한 표상*, 오광만 역, 서울: 여수론, 1991.
- Weber, Robert,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홍성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Willard, Dallas, *하나님의 모략*,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 Wilson, Rod, *상담과 공동체*, 김창대 역, 서울: 두란노, 1997.

### 3. 외국서적

- Arnold, Jeffrey, *The Big Book on Small Group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 Bartos, Emil, *Deification in Eastern Orthodox Theology*, U.K.: Paternoster Press, 1999.
- Collins, Gary R, *Helping Others Turn Potential into Reality : Christian Coaching*, Menasha: NavPress, 2001.
- Corniskey, Joel, *Home Cell Group Explosion : How Your Small Group Can Grow and Multiply*, Houston: TOUCH, 2002.
- \_\_\_\_\_,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4.
- Galloway, Dale & Beeson Institute Colleagues, *Building Teams in Ministry*, Kansas: Beacon Hill Press, 2000.
- Icenogle, Gareth W,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 An Integrational Approach*,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4.
- McBride, Neal F, *How to build a Small Groups Ministry*, Menasha: NavPress, 1995.
- \_\_\_\_\_, *How to lead Small Groups*, Menasha: NavPress, 1990.
- Peck, M. Scott, *The Different Drum: Community - Making and Peace*, New York:

- Touchstone, 1987.
- Roberts, Howard W. *Pastoral Care Through Worship*. Macon: Smyth & Helwys, 1995.
- Snyder, Howard A. & Runyon, Daniel V. *Decoding The Church : Mapping the DNA of Christ's Bod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2.
- Stevens, R. Paul. *The Other Six Days : Vocation, Work, and Ministry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0.
- Tenney, Tommy. *God's Dream Team : A Call to Unity*. Ventura: Regal Books, 1999.
- Vanier, Jean. *Community and Growth*.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1989.
- Weems, Lovett H. *Leadership in the Wesleyan Spiri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Vita of  
Kwi Sun Kwon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Immanuel Methodist Church, L.A.

Personal Data:

Birthdate:	July, 5, 1974
Marital Status:	Married to Hye Jung Eun
Home Address:	#306-1302 Chang-dong Jugong Apt., Dobong-gu, Seoul, Korea
Denomination:	The Methodist Church in Korea
Ordained:	April, 12, 2005.

Education:

B. A.	Mokwon University, Daejeon, 2001
Th. M.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3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8

Personal Experience:

9/2005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Immanuel Methodist Church, LA
1/2002 to 3/2005:	Senior Pastor of Shinsu Methodist Church, Asan, Korea